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



발행·편집인 김대욱
편집주간 김종명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8(부평동4가)
경남중고 총동창회관 5층
Tel.(051)253-7788 Fax.(051)255-7787
제작·인쇄 동아P&P Tel.(051)807-0600

“역사관은 일단 접더라도 ‘이태석 공원’은 해보자”

덕형관 원형복원 축소...모교사랑기금 목표 15억원으로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4,000명 목표 재도전, 협조 절실

김대욱(29회) 제39대 총동창회장 취임

“경남고 덕형관 원형복원 사업 축소로 모교역사관 건립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모교사랑기금 모금도 목표액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줄이겠다. 모교 장학사업에 10억원, 이태석 신부 기념공원 조성에 5억원이 필요하다. 여의치 않으면 이태석 신부 기념공원 조성마저 불가능해질 수 있다. 동문들의 보시와 배려가 절실하다.”

지난 1월 19일 제59차 정기총회에서 연임안이 통과돼 곧바로 제39대 총동창회장 임기를 시작한 김대욱(29회) 총동

창회장이 동창회보를 통해 취임사를 발표했다.<취임사 전문 2면, 인터뷰 4면>
김 총동창회장은 문화재청이 덕형관 원형복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 총동창회와 경남고가 기대했던 덕형관의 모교역사관 조성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밝혔다. 소요예산 15억원에 대한 모금도 불필요하게 된 셈이다.

김 총동창회장은 올해 모교사랑기금 모금운동에 동문들의 정성과 관심을 모아 이태석 신부 기념공원 조성까지



김대욱 총동창회장

해보자고 말했다.

김 총동창회장은 지난해 거둔 성과 등을 분석하고, “총동창회가 확실히 뿌리를 내렸고, 후배

기수들의 관심도와 참여도가 높아져 미래가 밝다”면서 “마음을 모으면 어려운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에 대한 공부가 깊은 김 총동창회장은 특히 ‘보시와 배려’를 강조하고 여기에 동문이 한마음 되는 길이 있음을 전했다.

김 총동창회장은 동창회보가 총동창회의 단합과 결속에 큰 영향을 미친다

면서, 올해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4,000명 목표 재도전을 선언하고 동문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김 총동창회장은 제39대 총동창회장 취임 기념 인터뷰에서 총동창회장의 임기를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 모교 개교8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 학교 및 재경동창회 측과 면밀히 협의해서 차질없이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시기부시스템으로 첫 ‘다이아몬드급’(5억원 이상 기부자)에 오른 것과 관련, 김 총동창회장은 “사회로부터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았다. 부의 상당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보시(기부)는 평생에 걸쳐 형편 닿는 대로 지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총동창회 제59차 정기총회가 지난 1월 19일 오후 영주동 코모도호텔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 연임안 승인

2021년 결산·2022년 예산안 통과...감사패·공로패 등 수여

동창회관장에 옥동훈(25회) 용마장학회 상임이사

제59차 정기 이사회총회 개최

경남중고 총동창회 제59차 정기 이사회 및 총회가 지난 1월 19일 오후 영주동 코모도호텔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서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의 연임안이 각각 만장일치 승인 가결됐다. 이로써 김 총동창회장은 제38, 제39대 총동창회장을 역임하게 되었다. 이날

2021년 결산서 및 2022년 예산서도 통과됐다.<관련기사 및 상보 2, 3, 4면>

김 총동창회장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되자 “고맙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1년 더 노력하겠다”고 짧막한 소감을 말했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참석 인원을 제한, 예전에 비해 소규모로 140명 정도가 참석한 단출

한 행사가 되었다. 여건상 여흥의 시간도 생략되었다. 박종기(28회) 80년사 편집위원이 사회를 맡았다.

정기총회 1부 행사에서 총동창회 주요 행사 고액 협찬 동문에 대한 감사패,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동문과 김미정 경남중, 백영선 경남고 모교 교장 등에 대한 공로패 수여가 있었다. 이어 수시기부자 중 등급 상향 동문에 대한 새 등급 기념패, 모교사랑기금 기부자에 대한 감사장 증정이 있었다.

이 자리서 김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한 해”라 말하고, 후배 기수들의 총동창회에 대한 애정과 참여도 제고, 골프대회 쾌거, 용마코스 정기공연 성공 등을 들어 총동창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덕형관 원형복원사업 축소, 동창회보 운영 적자 등 난관에 부딪힌 프로젝트 등에 대한 아쉬움도 표현했다.

이날 박종찬(25회) 고문이 격려사를, 이어서 백영선 경남고, 김미정 경남중 교장이 축사를 했다.

2부 행사에서 축하케이크 커팅과 건배 제의, 만찬, 교가 제창을 갖고 폐회했다.

한편 정기 총회에 앞서 코모도호텔 희락정에서 정기 이사회가 열렸다. 50명의 이사가 참석했다. 감사보고서서 엄재홍(28회) 감사는 “적정한 집행·운영으로 내실을 다졌음을 확인했다”는 의견을 냈다.

이사회는 이날 김 총동창회장의 연임안, 2021년 결산서와 2022년 예산안, 옥동훈(25회) 동창회관장 임명안 등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타토의 사항으로 총동창회 현응열(29회) 사무총장은 모교 80주년기념행사 준비 상황을 보고하고, 이사들의 좋은 아이디어 제공을 요청했다.

“총동창회가 보시와 배려의 품성 함양의 장 되길”

김대욱(29회) 제39대 총동창회장 취임사(전문)

친애하는 동문 여러분 다들 안녕하십니까. 세월은 어김없이 흘러 임인년 새해 첫 달도 저물어갑니다. 제가 38대 총동창회장에 취임한 지도 어언 일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지난 19일 코모도호텔에서 정상적으로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치를 수 있었고 1년 더 총동창회장으로 봉사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에 대한 소회를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어디 있었겠습니까만 제가 가졌던 느낌은 경남중고 총동창회는 이제 확실히 뿌리를 내렸고 오히려 후배 기수로 갈수록 총동창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져 보다 나은 총동창회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가슴 흐뭇한 일입니다.

여러가지 좋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대충 몇가지를 짚어보면, 5, 7회 선배님들의 총동창회·모교 방문이 있었습니다. 수구초심을 말하지 않더라도 중고교 시절이 늘 마음의 고향임을 상징합니다.

경미회 활동도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꾸준히 이어져 왔고, 50회 이후 기수들의 모임인 청마회도 발족하여 미래를 담보하는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용마골프회는 사상 최초로 64개조의 대회를 치러내며 동문들의 자발적인 관심을 성공적으로 수용해 내었습니다. 곧이어 KNN파크랜드배 전국 고교골프대회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우승하는 쾌거를 이룩함으로써 골프도 잘 치는 경남중고임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경야회 새 집행부는 리틀야구대회를 입안하고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야구 명문으로서의 경남고 위상을 다시금 알렸습니다. 나아가 야구부 후원회를 조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야구부를 도울 수 있는 기틀을 닦았습니다. 22회 유재진 선배님께서 후원회장직을 맡으면서 남다른 리더십을 발휘,



김대욱 총동창회장

후원금 모금액이 벌써 1억원을 넘었을 뿐 아니라 재경동창회 선배님들의 참여도 이끌어 재경과의 화합에도 중요한 가교 역할을 기대케 하고 있습니다. 용마코러스는 이 엄중한 시기에도 연습의 끈을 놓지 않고

지난해 12월 7일 정기공연을 훌륭히 치러냄으로써 지성과 감성을 모두 아우르는 경남중고인들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경남중고 총동창회가 일응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만, 몇가지 아쉬운 점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덕형관 원형복원사업이 문화재청의 대폭적인 예산삭감으로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덕형관 4층 건물을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모교역사관으로 꾸미려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지난해 6월 모교사랑기금 캠페인을 주창하면서 목표로 했던 30억원을 이제 15억원으로 수정하여 모교 장학사업에 10억원, 이태석신부 추모 미니공원조성에 5억원을 쓰고자 합니다. 1월 25일 현재 총모금액은 8억원 남짓, 제 임기동안 모금운동을 열심히 독려해도 자칫 미니공원조성도 힘들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총동창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며 여러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재정은 말할 것도 없이 회비와 기부금으로 충당됩니다. 불가(佛家)에서는 보시(布施)를 육바라밀(六婆羅蜜)의 으뜸 덕목으로 놓고 있습니다. 베풀되 베풀다는 생각이 없는 보시, 이른바 무주상(無主相) 보시의 공덕은 한량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각

해보면 가없이 얽힌 인연의 바다 속에 살고 있는 중생들입니다. 작든 크든 어떤 성취가 있다 해서 스스로의 공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보시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 감사하고 보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행복해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면 감사해야 할 일들이 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배려, 즉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입니다. 동기회든, 총동창회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다 보면 사뭇 다른 견해들도 접할 수 있고 사람인지라 호오(好惡)의 감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자왈, 기서호(其恕乎)라 했습니다. 여기서의 '서'자는 용서할 때의 '서'자로서 나와 상대의 마음이 같음을 뜻합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가슴 속에 새겨두고 살아야 할 한 글자가 있다면 무엇이겠는가라는 제자의 질문에 공자가 그것은 '서'라고 답한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보시와 배려를 두 축으로 하여 품성함양의 장(場)이 되는 경남중고 총동창회를 지는 꿈꿉니다. 보시를 생활화하고, 기서호의 정신을 새기며, 일일삼성(一日三省) 여러박빙(如履薄冰)의 자세로 하루하루 인격도야에 힘쓰면 적어도 살아감에 크게 낭패볼 일은 없습니다. 삶의 총체적 질은 결국 그 인격에 정확히 비례합니다.

한가지 더 아쉬운 점은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자수의 감소입니다. 올해는 납부자 수 4,000명 재도전, 광고수입 활성화 등을 통해 동창회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동창회보는 총동창회의 단합과 결속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올 한해 임인년은 여러가지로 참으로 중요한 한해입니다. 대선이 있고 코로나도 종식되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하느님이 보우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문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덕형관 원형복원 부분보수로 역사관 건립 좌초

‘원형복원+현대화’ 제동…공간 변화 힘들어

국가등록문화재인 경남고 덕형관 원형복원 사업의 축소화에 따라 모교 역사관 건립 계획이 좌초됐다. 총동창회와 경남고는 덕형관을 제대로 복원하여 모교 역사관으로 개관, 시민에게도 개방하는 등 지역 문화와 역사의 거점으로 거듭나게 할 작정이었다.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문화재청은 원형복원이 아니라 부분 보수정비 공사로 한정하여 예산 배정을 제한했다. 경남고가 총동창회와 논의하여 최초 요청했던 예산액은 37억원이었다. 주요 시설보수와 내부시설의 기능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문화재청은 보수시설에 한정하여 사업 축소를 지시했다. 예산이 8억원대(그 후 6억원대로 더욱 하향 조정됐다)로 쪼그라들었다. 총동창

회와 경남고는 이에 대해 현대화 부분을 제외한 필수적인 사업비는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사업비 20억8,200만원 요청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의신청은 무위에 그쳤다. 이의신청서가 제대로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서류가 경남고→부산서구청→부산시청→문화재청을 거치는 과정에서 지연되었고, 또 제대로 접수됐는지가 오리무중이다. 결국에는 문화재청에서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귀결된다.

총동창회는 덕형관 원형복원이 부분보수에 그침으로써 일단은 역사관 건립 계획을 보류했다. 미래 세대에 그 과제를 넘긴 셈이다. 역사관 건립 소요 예산



덕형관 전경.

(15억원) 모금 계획도 수정했다.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은 “이미지도 여의치 않을 경우 이태석 신부 기념 미니공원조성도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한 동문은 “개성고(옛 부산상고) 교정과 역사관을 방문해 보라. 느끼는 바가 많을 것이다”라고 회한 말을 던졌다.

2022년 재경동창회장 하창우 회장 연임



재경동창회는 지난 1월 27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엘타워’ 그랜드홀에서 2022년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이날 하창우(27회·사진) 재경동창회장의 연임안이 가결되었다. 하 회장은 이로써 근자에 들어 첫 임기 2년의 회장이 된 셈이다.

하 회장은 지난 재경회보 용마지에서 “올해는 모교가 개교 80주년이란 위대한 역사를 기록하게 된다. 앞으로 영원히 지속하는 위대한 역사를 기록해 나가자”면서 “동문들이 서로 사랑하고 돕는 새해를 맞자”고 말했다.

하 회장은 “올해는 모교가 개교 80주년이란 위대한 역사를 기록하게 된다. 앞으로 영원히 지속하는 위대한 역사를 기록해 나가자”면서 “동문들이 서로 사랑하고 돕는 새해를 맞자”고 말했다.

총동창회 정기총회

임인년 새해 밝힌 '활력소' 정기총회 "우린 하나다"

13~60회 동문들, 모처럼 한 자리서 덕담 나누며 결속 다져

유공 동문에 감사패공로패 증정 기부 등급 상향자에 기념패 전달

지난 1월 19일 열린 총동창회 제59차 정기 이사회 및 총회는 각 기수와 지구 및 지역, 직능단체 등의 대표로 구성된 이사진을 비롯하여 제한된 인원의 참석으로 행사가 치러졌다. 코로나19 사태로 근자에 들어 많은 동문이 모인 적이 별로 없었고, 큰 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 이날 행사는 새해를 밝히는 모처럼의 활력소가 되었다.

이날 참석 동문은 13회(배대결 윤기갑)부터 60회(유영재)까지 47년이란 세월의 간극 속에서 모두 '자랑스러운 경남중고인'으로 한마음이 되었다. 참석자 이름이 한 명, 한 명 소개됐다. 용마장학회 이병찬(23회) 이사장과 옥동훈(25회) 상임이사 겸 동창회관장도 자리했다. 이날 동문 외 내빈으로는 경남고에서 백영선 교장, 경남중에서 김미정 교장, 강은아 운영위원장, 최혜성 학부모회장 등이 참석했다.

■유공자 표창

참석자 소개에 이어 유공동문 표창이 있었다. 먼저 총동창회 주요 행사 고액 협찬 동문에 대한 감사패 수여가 진행됐다. 유재진(22회·총동창회 자문위원) 최우철(30회·"일반위부회장) 박진용(36

회·"집행위부회장) 신동훈(38회·동기회장) 동문이 대상이다. 이날 박진용 동문만 참석했다.

이어 공로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백영선 경남고 교장과 김미정 경남중 교장이 모교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이어 박종찬(25회·총동창회 고문) 이문열(29회·전 덕형리그 회장) 이종휘(32회·전 용마골프회 회장) 김법영(33회·전 용마산악회 회장·대리 수상) 우영환(40회·경미회 초대회장) 최영준(41회·경미회 2대회장) 동문이 동창회 활동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으로 공로패를 받았다.

■수시기부 등급 상승 동문 기념패 수여

수시기부시스템을 가동하면서 500만원 이상 기부자에 등급을 부여한 이래 지난 연말 김대옥(29회) 총동창회장이 약정 기부금을 완납함으로써 총 기부금 5억1,400만원으로 최초 다이아몬드 등급자가 되었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2억4,200만원)은 사파이어급에, 김진철(25회) 총동창회 자문위원(1억1,400만원)은 에메랄드급에, 전용우(24회·5,000만원) 김현태(30회·5,350만원) 동문은 플래티늄급에, 이종휘(32회·2,010만원) 박철웅(34회·1,050만원) 동문은 실버급에, 김삼현

(7회·500만원) 김정태(41회·510만원) 최영준(41회·510만원) 동문은 브론즈급에 각각 올랐다.

대상자에게는 해당 기념패가 각기 전달됐다. 이 자리서 모교사랑기금 기부자에게도 감사장 전달식이 이어졌다.

■총동창회장 인사

김 총동창회장은 지난 1년을 회고하고, 당면 과제에 대한 해법, 올해 주요 목표 등을 제시했다. 괄목할 만한 성과도 있지만, 추진했던 몇 가지 프로젝트가 난관에 부딪혔다고 진단했다.

특히 덕형관 원형복원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을 '서글픈 현실'이라 말했다. <기사 4면에 넘김>



지난 1월 19일 총동창회 제59차 정기총회가 열린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 전경.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각종 행사 고액 협찬 감사패 증정 모습.



정기총회 축하 케이크 절단식 장면.



공로패 수상자들 모습.



기부 등급 상향포상 동문들.

용마의 밤·80주년기념행사 새해 예산 편성

2021년 동창회보 운영, 구독료 납부 저조로 적자 기록

지난 1월 19일 열린 총동창회 제59차 정기 이사회와 총회에서 2021년 결산서와 2022년 예산안이 승인 통과됐다. 2021년도 사무국 수입과 지출은 각 2억1,342만원(전년도 이월금 2,991만원, 차기 이월금 4,891만원 포함)이었다. 수입 주요항목으로 임원회비 1억4,500만원, 기별분담금 3,630만원이다. 지출 주요항목으로 모교지원금 1,332만원(경남고 496만원, 경남중 242만원, 패션마스크 제작비 594만원), 조직강화비 3,787만원, 일반관리비 1억1,294만원 등이다.

용마장학회의 목적사업비(모교 장학금) 지출은 5,800만원(경남중 우수학생 장학금 300만원, 경남중 야구부 지원 1,500만원, 경남고 야구부 지원 2,500만원, 경남고 우수학생 특강비 1,500만원)이다.

2021년 동창회보 운영 결산서는 1억474만원, 야구후원금 운영 결산서

는 4,487만원, 용마골프대회 운영 결산서는 5,782만원의 수입·지출이 기록됐다. 2021년 모교사랑기금(총동창회로 입금)에서 경남고 야구부 패딩외 지원금 1,890만원이 지출됐다. 지난해 동창회보 운영은 500만원 정도 적자를 기록했다. 구독료 납부자가 2,474명에 그쳐 수입이 준 탓이다.

2022년 사무국 운영 예산안은 2억1,891만원 규모로 짜여졌다. 수입(전년 이월금 4,891만원)은 임원회비 1억3,000만원, 기별분담금 4,000만원으로 짤다. 지출(예비비 594만원)은 모교지원금 2,300만원(경남고 학년별 교사 지원비 1,200만원 포함-2020년까지 재경동창회에서 지원하다 2021년부터 끊긴 것을 총동창회에서 지원), 조직강화비 8,030만원(용마의 밤 행사, 개교 80주년기념행사 비용 포함), 일반관리비 1억967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인터뷰

연임한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

“모교 개교 80주년 기념행사, 재경과 협의 잘 치를 터”

총동창회장 임기는 2년으로 개정하는 게 바람직
첫 다이아몬드급 기부자...“평생 형편 닿는 대로 보시”

-제39대 총동창회장에 취임했다. 총동창회장 연임 소감은?

▲박종찬 고문 시절에 개정된 회칙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총동창회장 임기는 1년이고 한번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의 경우 마땅한 수석부회장을 현재 물색 중이고, 또 지난 6월 시작한 모교사랑기금 운동을 독려해 목표액수를 채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년이라는 시간은 조직과 사람들 면면을 파악하기에도 벅찬 시간으로 기본적으로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난 2021년 한 해 바쁘게 움직였다.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각종 조직, 즉 동기회, 직능동호단체, 지역구 등 조직을 파악하고 면면을 익히기에 여념이 없었다. 더욱이 코로나 시국이라 모임들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

-올해 모교 개교 80주년 기념식이 목전에 다가왔다. 올해 상반기 최대 행사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떠한지?

▲80주년 행사는 명문 모교의 역사가 유구함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이다. 가장 핵심적인 80년사 봉정식, 기념식수, 기념품 전달 등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학교 및 재경동창회 측과 면밀히 협의해서 차질없이 행사를 치를 생각이다.

-2022년 역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총동창회 활동을 멈출 수는 없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기본적으로는 박종찬 고문 시절에 담은 총동창회 중흥 기운을 더욱 공고히 다져 총동창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것이다.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경남중고 총



제39대 총동창회장에 취임한 김대욱 회장은 “지금의 총동창회 중흥 기운을 더욱 공고히 다져 반석 위에 올려놓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동창회를 보시와 배려를 두 축으로 품성함양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내 개인적인 꿈이다. 힘닿는 대로 솔선수범하겠다.

-수시기부시스템으로 첫 ‘다이아몬드급’(5억원 이상 기부자)에 올랐다. 기부하게 된 동기와 기부와 관련된 향후 계획은 있는지?

▲나는 늘 살아오면서 사회로부터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해왔다. 나 하나 잘나서 쌓은 부가 아닌 만큼 상당부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무주상 보시의 한량없는 공덕을 믿는 사람으로서 보시 혹은 기부는 평생에 걸쳐 형편 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지난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모교사랑기금 모금 참여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악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해쳐나갈 좋은 방안이라도 있는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비상시국이다. 우선은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야겠지만 보다 많은 동문들이 발심하여 보시를 생활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총동창회장 직을 수행하면서 본인의 사업에 별 영향은 미치지 않았는지?

▲내 사업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고, 큰아들이 수년째 회사 업무를 보고 있어 총동창회 활동으로 인해 회사 경영에 피해가 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총동창회 활동이 적당한 일거리가 되어 생활에 자극을 준다.

-후배들 중에서 총동창회장이 돼 봉사하고 싶은 동문이 있다면, 조언해주고 싶은 말은?

▲총동창회장은 기본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이다. 늘 낮은 자세로 동문들을 섬긴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한다. 동시에,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의 얼굴이면서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늘 조심하고 삼가야 한다.

-후배 기수들의 총동창회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선배기수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처지는 느낌이다. 모교 개교 80주년 기념행사를 치르고 나면 개교100주년을 준비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선배기수와 후배기수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해달라.

▲우선 후배기수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음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경미회, 청마회 등 젊은 후배기수들의 모임이 활성화 되고 있어 총동창회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고 있다. 그럴수록 총동창회를 품성함양의 장으로 삼는 풍토가 중요하다.

연로해지는 선배님들의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작년 5, 7회 선배님들의 모교 및 총동창회 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고교 시절은 우리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다. 후배들이 노력해서 보다 번영하는 총동창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기사 3면에서 받음>

모교사랑기금 모금운동이 기대에 못 미친 점을 고려, 불가(佛家)의 보시와 배려의 덕목을 강조했다.

김 총동창회장은 “동창회보의 안정적인 운영이 총동창회의 결속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올해 구독료 납부 4,000명에 다시 도전하자”고 말했다.

■격려사 및 축사

박 총동창회 고문은 격려사에서 포도 나무 뿌리 해충 피로셀라 변창으로 프

랑스 와인산업이 와해 위기에서 내성을 가진 미국 야생종과의 접목을 통해 다시 중흥한 사례를 비유하며, “총동창회가 활력을 잃어가다 총동창회관 개관과 후배기수들의 참여 등으로 다시 발전과 활성화의 길에 들어섰다. 모교야구부 후원회의 재출범이 도약을 위한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이라면서 많은 가입을 요청했다.

백 경남고 교장은 축사에서 “자랑스러운 경남고 교장으로 책임이 무겁다. 학생

들에게 자긍심을 불어 넣어주고 학력 증진에 노력하겠다. 공간혁신 등 학교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100년 역사의 명문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경남중 교장은 “부임 2년반 동안 최선을 다했다. 각종 상을 싹쓸이 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내가 경남중 출신인가’ 착각할 정도로 많이 친밀해졌다. 학생들 잘 키우겠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이날도 특유 사행시 ‘경남중고’(21면 참조)를 읊어 박수갈채를 받았다.

■기타



제59차 정기이사회 참석자들.

이날 주요 안건(결산보고 및 예산 승인, 동창회장 연임 승인)에 대한 만장일치 통과 이후 축하 케이크 커팅 및 건배제의가 있었다. 백 교장과 김 교장, 13회 배·윤 원로동문, 김 총동창회장, 이용마장학회 이사장, 박 총동창회 고문, 광두회(24회) 총동창회 자문위원장이 참가했다. 윤 원로동문이 건배사를 했다. 이어 만찬과 교가 제창(녹음 듣기)을 끝으로 이날 행사의 막은 내렸다.



모교사랑기금 기부자 감사패 증정 모습.

올해 한 해 총동창회 운영 짚어보다

집행위부회장단 회의, '80주년 행사' 논의 동창회보 운영 적자 탈피 방안 등 내놓아

2022년 첫 총동창회 집행위 부회장단 회의가 정기총회에 앞서 지난 1월 11일 오후 총동창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연초라서 참석자가 적었다.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 곽두희(24회) 자문위원장을 비롯, 집행위 부회장 류명석 오민일(이상 31회) 정운성(35회) 박진용(36회) 전삼록(41회) 동문, 사무국에서 현응열 사무총장, 김종명(이상 29회) 동창회보 편집주간, 윤원욱(39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가 예정이었던 다수의 부회장들이 긴급한 바쁜 일정으로 갑작스레 불참을 통보해왔다.

김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참석률이 저조하다. 이 또한 용마들의 새해 힘찬 도약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판단하고 동문 모두가 잘 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회의를 갖자”면서 “올해의

주요 행사를 정하고, 정기 이사회 및 총회에 상정할 의안들을 정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알찬 회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서 2021년 결산서와 2022년 예산안 심의가 있었다. 2021년 동창회보 운영 적자와 관련, 원인 분석과 참석

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 구독료 납부자가 재작년 3,150명에서 지난해 2,474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됐다. 단체로 구독료 납부를 많이 하는 40대 이후 기수들의 모임이 별로 없었던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목표는 4,000명 달성이다. 정기 총회 이후 조속히 각 기별 회장·국장단 모임을 개최하여 독려키로 했다. 또한 회보 광고 유치에도 적극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2022년 예산안과 관련, 경남고 학년별 교사활동 지원비 1,2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 지원금은 재정동창회에서 2020년까지는 해 오던 것으로 이번에 총동창회에서 안게 되었다. 이 자리서 경남고 측의 상황 설명을 현 사무총장이 전했다.

올해 주요행사로, 제59차 정기 이사회 및 총회(1월 19일), 용마골프대회(5월 중), 기별야구대회(코로나19로 탄력적으로 운영), 용마당구대회(동창회관 이용 활성화), 용마바둑대회, 용마의 밤(12월 8일 서면 롯데호텔 예약), 총동창회 발전 기여 동문 포상 등이 있다.

1/4분기 중 전체 임원총회를 가질 계획이다.

모교 개교 8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 학교 측과 이른 시간 내 일정 조율을 갖고 재정동창회와도 협의하기로 했다. 모교 80년사 봉정식, 기념식수, 각종 포상, 모교사랑 걷기대회, 특별장학금 수여 등 여러 안이 나와 있다.

지난 1월 11일 오후 총동창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첫 총동창회 집행위 부회장단 회의 참석자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80년사 편찬 작업 막바지 “두 달 후면 봉정식” 모교사는 가제본 교정 작업...광고 유치 진행 중

모교 80년사 편찬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현재 총동창회 편찬위원회와 제작사인 금성기획 측 간의 제작 논의가 한창이다. 학교사 원고는 거의 건네져 편집작업 중에 있으며,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오는 4월 30일 개교기념일 무렵에 모교에 80년사를 전하는 봉정식을 갖는다. 물론 완성본은 아니고, 가제본 상태로 한다. 재정편집위원회서 주관하는 동창회사가 좀 지연될 것으로 보이고, 개교 80년주년 기념식 내용도 80년사에 포함시키기 위해서이다.

지난 1월 6일 오전 총동창회 5층 회의실에서 편찬위원회는 금성기획 최종환 사장과 회의를 가졌다. 이날 모교

80년사 제작과 관련한 일정, 책 크기, 발간 부수, 광고 유치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80년사 편찬 일정은 1월 6일 학교사 1차 자료 전달, 1월 15일께 견본 제작 전달, 2월초 가제본 완성까지만 잡았다. 책은 A4사이즈로 제작하며, 2,000페이지 분량으로 만들기로 했다. 표지는 미리 제작하되 견본 3권을 만들어 가제본으로 봉정식을 치른다. 광고는 약 24페이지 분량으로 잡고, 도서관 등에 납본(기증)할 80년사 300권 정도는 광고를 배제키로 했다.

80년사는 총 4,000부를 발간하며, 기증본과 무료 제공될 총회원명부 구입자, 광고 게재자 제공본을 제외한 분

량은 판매할 계획이다. 판매단가는 현재 미확정이다.

편찬위원회는 80년사 책자의 본문 활자체를 총동창회 밴드 여론조사를 통해 신문체로 확정했다.

한편 편집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오전 회의에서 일부 내용의 교정쇄를 놓고, 지면과 사진 활용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서 지면 상단은 3.5cm, 좌·우측

2.5cm, 하단 2.5cm, 양 중앙 각 3cm씩의 여백을 두기로 했다. 각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중간타이틀용 색띠를 두되, 경남중은 붉은색, 경남고는 청색으로 구분키로 했다.



모교 80년사 교정쇄.



지난 1월 6일 오전 총동창회 5층 회의실에서 열린 80년사 편찬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알림>

<<모교 80년사 광고 후원 모집합니다>>

모교 80년사 편찬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는 4월 30일 개교기념일에 즈음하여 봉정식을 갖습니다. 50년사, 60년사, 70년사 편찬은 연이어 실패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예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올 80년사는 100년사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동문역사에 큰 획을 긋는 쾌거라 하겠습니다.

80년사는 A4사이즈 총2,000페이지 정도의 두 권 편성 컬러 책자가 될 것입니다. 학교사편은 총동창회 편집위원회가, 동창회사편은 재정편집위원회가 주관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광고 후원은 동문역사에 길이 남는 보람된 일입니다.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여직원의 상담전화 후 원하는 동문에 한해 광고를 심습니다.

*문의 : 박종찬(25회) 80년사 편찬위원장: ☎010-3801-0851
총동창회 사무국: (051)253-7788

- 광고 첫면 인쇄 300만원
- 내부 전면 인쇄 200만원
- 반면 인쇄 100만원
- 1/4면 인쇄 40만원
- 1/5면 인쇄 20만원

경남중·고 총동창회

제59차 정기 이사회 및 총회 - 결산·예산서

2021년 사무국 운영 결산서

수입부문(2021 사무국)

(2021. 1. 1~2021. 12. 31)

과 목		2021년 결산 규모	
관	항	결산액	산출근거
합계		213,422,677	
이월금	전년이월금	29,915,237	1)은행 보통예금 29,633,290 2)현금 281,947
회비	임원회비	181,300,000	1)회장 50,000,000 2)자문위원 21,000,000 3)집행위 부회장 38,000,000 4)부회장 및 운영위원 36,000,000
		145,000,000	
	기별분담금	36,300,000	1)2021년도분 36,300,000
기타		2,207,440	1)은행 보통예금 이자 7,440 2)기금2계좌에서 마스크비용 옮김 2,200,000

지출부문(2021 사무국)

(2021. 1. 1~2021. 12. 31)

과 목		2021년 결산 규모	
관	항	결산액	산출근거
합계		213,422,677	
모교지원금		13,325,000	
경고지원비	경고지원비	4,960,000	1)경고 교직원 추석 선물비 990,000 2)경고 전출교사, 정년퇴임 교사 전별금 및 상패 1,000,000 3)경고 개고기념일 재학생 기념품비 2,670,000 4)경고 졸업식 동창회장상(부상 상품권 구입비) 300,000
	경중지원비	2,425,000	1)경중 개고기념일 재학생 기념품비 2,125,000 2)경중 졸업식 동창회장상(부상 상품권 구입비) 300,000
		5,940,000	1)팬셔마스크 제작비(@1,980x3천장) 5,940,000
조직강화비		37,877,340	
회의비	회의비	8,811,840	1)2021년 정기총회 회의비 4,175,240 (식비 2,460,000원, 녹화 및 전자 투표 외 1,715,240원) 2)기타 모임 및 회의비 4,636,600 ①비대면 임시이사회 사전 회의(3/19, 3/20) 255,500 ②자문위원 상견례(6/29) 169,000 ③운영위 부회장 회의(5/24) 310,000 ④집행위 부회장 회의(2/17, 6/10, 9/13, 11/9) 1,341,000 ⑤일반위 부회장 회의(6/11) 291,000 ⑥동기회장 상견례(5/12, 5/20) 944,000 ⑦동호단체 상견례(6/7) 346,000 ⑧지역동창회 상견례(6/17) 215,000 ⑨용건회 회관 개관1주년 기념 합동점검(6/16) 317,000 ⑩비대면 정기이사회 모바일 투표 비용(10/12) 228,100 ⑪용마강학회 신입이사 추천 동의 승인 투표 비용(10/25) 220,000
	경조비	2,440,000	1)경사 회환 및 축의금 1,090,000 ①동문 경사 및 각 동기회, 지역·직능·동호회 행사 670,000 ②타교 동창회 행사 및 대외 경사 420,000 2)홍사 조화 및 조의금 1,350,000 ①동문 홍사 1,350,000
행사지원비		18,050,000	1) 9개 지구동창회 모임 격려 지원비 4,600,000 ①강서지구 송년모임 격려금(12/29) 500,000 ②남부산지구 상견례 및 송년모임 격려금(12/3) 500,000 ③동래·금정지구 격려금(4/26) 500,000 ④부산진·연제지구 격려금(4/21) 500,000 ⑤부산진·연제지구 임원단 회의 격려금(12/10) 300,000 ⑥북부산지구 임원단 송년회 격려금(12/16) 500,000 ⑦사하지구 상견례 격려금(4/2) 500,000 ⑧중부산지구 집행부 상견례 격려금(3/25) 500,000 ⑨중부산지구 임원단 송년회 격려금(12/27) 300,000 ⑩해운대지구 격려금(4/28) 500,000 2) 직능·동호회 격려 지원비 8,100,000 ①경미회 총회 격려금(3/22) 500,000 ②경미회 축구대회 격려금(10/23) 500,000 ③경미회 골프대회 격려금(11/16) 300,000 ④경북회 정기법회 격려금(11/20) 500,000 ⑤경야회 격려금(5/7) 300,000 ⑥덕형리그 개막 격려금(5/8) 500,000 ⑦덕형리그 대표자회의 격려금(12/2) 300,000 ⑧덕형리그 납회식 및 회장 이취임식 격려금(12/23) 500,000 ⑨동호단체장 상견례 격려금(6/7) - 용마당구회 300,000 ⑩동호단체장 상견례 격려금(6/7) - 용마바둑회 300,000 ⑪동호단체장 상견례 격려금(6/7) - 용마산악회 300,000 ⑫동호단체장 상견례 격려금(6/7) - 용마코러스 300,000 ⑬등대회 모임 격려금(5/27) 300,000 ⑭연륜인클럽 격려금(4/29) 300,000 ⑮용건회 상견례(5/26) 300,000 ⑯용마골프회 정기 라운딩 격려금(3/15) 500,000 ⑰용마바둑회 (yes24배 고교동문바둑대회 출전 격려) 1,000,000 ⑱용마산악회 정기총회 격려금(12/28) 300,000 ⑲용마코러스 정기연주회 격려금(12/7) 300,000 ⑳청미회 창립총회 격려금(10/20) 500,000 3) 홈커밍데이 지원비 2,450,000 ①55회 졸업 70주년 홈커밍 준비 및 선물 구입비 1,950,000 ②55회 졸업 20주년 홈커밍 격려금(11/27) 500,000 4) 동기회 모임 격려 지원비 200,000

과 목		2021년 결산 규모	
관	항	결산액	산출근거
홍보비		8,228,400	①55회 동기회 창립총회 격려금(5/21) 200,000
			5)지역동창회 격려 지원비 1,700,000
			①거제지역동창회 격려금(6/17) 300,000
			②김해지역동창회 송년모임 격려금(12/2) 300,000
			③김해지역동창회 격려금(6/17) 300,000
			④울산지역동창회 격려금(6/17) 300,000
			⑤창원지역동창회 정기모임 격려금(7/6) 500,000
			6) 기타 행사 지원비 1,000,000
			①고교동문 골프대회 출전 지원비 1,000,000
			1)경남고 졸업식 기념 티셔츠 제작(@5,000X300개) 1,500,000
2)경남중 졸업식 기념 티셔츠 제작(@5,000X200개) 1,000,000			
3)마스크 제작비 4,408,400			
4)55회 회기 제작비 250,000			
5)용건회 회기 제작비 250,000			
6)용마골프회 회기 제작비 250,000			
7)중부산지구동창회 회기 제작비 250,000			
7)임원 및 직원 명함 제작비 104,000			
8)임시총회 및 이사회 외 행사 현수막 제작비 200,000			
9)사진인화비 16,000			
교통비	347,100	1)업무 활동 교통비 347,100	
일반관리비		112,945,882	
인건비		62,336,200	1)사무국장 및 여직원 1명(복리후생비포함) 59,936,200
			2)사무총장 판공비 2,400,000
퇴직금		4,878,007	1)퇴직적립금 4,878,007
업무추진비		5,310,800	1)업무추진비 외 5,310,800
통신,우편료		1,548,370	1)사무국 휴대전화비 293,270
			2)각종 우편물 및 택배 발송비 755,100
			3)SMS(문자) web발송 충전비 (뿌리오) 500,000
인쇄도서비		720,600	1)상자케이스 및 내지 구입 525,000
			2)산문 구독료 180,000
			3)기타 인쇄도서비 15,600
관리비		32,566,405	1)전기세 4,180,770
			2)임대료 21,450,000
			3)사무국 관리비(회관) 6,935,635
비품비		1,897,670	1)복사기·FAX 임대료(12개월) 1,560,000
			2)정수기 관리비 115,200
			3)대용량 가슴기 구입비 99,000
			4)화장실 온열 변기커버 외 69,550
			5)기타 비품 구입비 53,920
소모품비		2,355,730	1)각종 사무용품비 968,720
			2)사무실 소모품비 1,387,010
컴퓨터운영		1,332,100	1)컴퓨터 운영 제비(홈페이지 호스팅 및 도메인 연장) 278,600
			2)컴퓨터 수리비 및 모니터 교체비 453,500
			3)홈페이지 유지 관리비(망고) 600,000
용마의 밤	용마의 밤	342,000	1)용마의 밤 수여 상패 택배발송 파손분 재제작(3건) 150,000 2)용마의밤 택배비 192,000
기타	잡비	19,100	1)잡비(등기반송 수수료, 서류발급수수료 외) 19,100
이월금	이월금	48,913,355	1)은행 보통예금 48,853,268 2)현금 60,087

2021년 동창회보 운영 결산서

수입부문(2021 회보)

(2021. 1. 1~2021. 12. 31)

과 목		2021년 결산 규모	
관	항	결산액	산출근거
합계		104,743,211	
이월금		21,654,899	1)은행 보통예금 21,654,899
광고비		9,500,000	1)2021년 광고비 9,500,000
			①433호(35회 손수봉) 2,000,000
			②434호(45회 최재근) 2,000,000
			③435호(45회 김상수) 2,000,000
			④436호(51회 신현식) 2,000,000
			⑤437호(23회 이상수) 1,500,000
회보구독료		73,556,435	1)2021년 회보구독료(총 2,474명=선남미포함) 73,556,435 * 선남 : 2022년(69명) / 2023년 이후(133명)
기타		31,877	1)은행 보통예금 이자 1,877
			2)축사판 수입 30,000

지출부문(2021 회보)

(2021. 1. 1~2021. 12. 31)

과 목		2021년 결산 규모	
관	항	결산액	산출근거
합계		104,743,211	
제작비		16,870,090	1)제작비(6회) 16,870,090
발송비		20,936,010	1)회보 발송료 (해외지역 포함) 17,005,100
			2)봉투 제작 및 발송 작업 제비 3,930,910
운영비		48,183,003	1)기획·편집비 (편집주간) 24,000,000
			2)편집주간 24면 이상 증면 발행 성과급 외 1,000,000
			3)여직원 급여 22,258,503
			4)편집위원 회의비 (1/29, 5/26, 8/5, 9/29) 5회 624,500
			5)인터뷰 원고료 300,000
기타		2,074,035	1)카메라렌즈 구입 및 수리비 240,000
			2)여직원 퇴직적립금 1,834,035
이월금		16,680,073	1)은행 보통예금 16,680,073

제59차 정기 이사회 및 총회 - 결산·예산서

2021년 야구 후원금 운영결산서

수입부문(2021 후원금)

(2021. 1. 1~2021. 12. 31)

과목		2021년 결산 규모	
관	항	결산액	산출근거
합계		44,878,146	
이월금		12,376,911	1)은행 보통예금 12,376,911
후원금	기별후원금	22,500,000	1)2021년도(32개 동사회) 22,500,000
기타		10,001,235	1)은행 보통예금 이자 1,235 2)용마골프장소재에서 대여(경남중 야구부 피칭기계 구입) 10,000,000

지출부문(2021 후원금)

(2021. 1. 1~2021. 12. 31)

과목		2021년 결산 규모	
관	항	결산액	산출근거
합계		44,878,146	
지원비		26,000,000	1)경남고 야구부 지원금 10,000,000 2)경남고 야구부 황금사자기 출전 격려금 2,000,000 3)경남고 야구부 봉황대기 출전 격려금 2,000,000 4)경남고 야구부 청룡기 야구대회 출전 격려금 2,000,000 5)경남중 야구부 지원금(피칭기계 구입비) 10,000,000
이월금		18,878,146	1)은행 보통예금 18,878,146

2021년 제23회 용마골프대회 운영결산서

수입부문(2021 용마골프)

(2021. 1. 1~2021. 12. 31)

과목		2021년 결산 규모	
관	항	결산액	산출근거
합계		57,828,539	
이월금		14,477,712	1)은행예금 14,477,712
참가비		7,450,000	1)참가비(30,000원x248명) 7,450,000
협찬금		35,900,000	1)회장단 협찬금(상세 내역 협찬금 리스트 참조) ①회장 5,000,000 ②고문(3명) 3,500,000 (200만원x1명, 100만원x1명, 50만원x1명) ③자문위원(5명) 3,500,000 (100만원x2명, 50만원x3명) ④부회장단(운영위, 집행위, 일반위) 16명 17,100,000 (500만원x1명, 300만원x1명, 100만원x6명, 50만원x4명, 30만원x3명, 20만원x1명) 2)동문 협찬금 6,800,000 (100만원x1명, 50만원x6명)
기타		827	1)은행 예금이자 827

지출부문(2021 용마골프)

(2021. 1. 1~2021. 12. 31)

과목		2021년 결산 규모	
관	항	결산액	산출근거
합계		57,828,539	
단합회식비		8,150,000	1)코로나19로 저녁행사 취소되어 참가비 반환 7,450,000 2)떡 구입비(스타자동차 협찬 감사 선물세트, 도사락) 700,000
참가상		3,900,000	1)출전 선수 기념품비 3,900,000 타올@5,000X300개=1,500,000 (선크림@8,000X300개=2,400,000)
포상비		9,320,000	1)트로피 제작비 720,000 2)골프공(@30,000x220더즌) 6,600,000 3)행운권 경품(드라이버, 퍼터, 웨지) 2,000,000
홍보비		260,000	1)문구 및 소모품비 60,000 2)판넬 200,000
운영비		16,140,580	1)대회 운영경비 (회의 및 행사요원 식대) 1,711,580 2)용마골프대회 시상식 식대 614,000 3)그린피 지원 11,972,500 4)불침차 대타 그린피 지원 500,000 5)용마골프대회 집행부 대회 종료 후 회식비 561,500 6)용마골프대회 협찬동문 감사선물 및 택배비 781,000 (명란@70,000X3개, @45,500X10개)
기타		12,933,000	1)야구계좌로 송금해서 야구부 지원 10,000,000 2)파크랜드배 KNN고교동문골프대회 출전경비 1,933,000 3)KNN대회 우승 트로피 및 상패 제작비 1,000,000 (트로피@300,000x3개, 상패@100,000x1개)
이월금		7,124,959	1)은행예금 7,124,959

2021년 모교사랑기금 운영결산서

수입부문(2021 모교사랑)

(2021. 1. 1~2021. 12. 31)

과목		2021년 결산 규모	
관	항	결산액	산출근거
합계		138,562,726	
모교사랑기금		138,560,000	1)모교사랑기금 138,560,000
기타		2,726	1)은행 보통예금 이자 2,726

지출부문(2021 모교사랑)

(2021. 1. 1~2021. 12. 31)

과목		2021년 결산 규모	
관	항	결산액	산출근거
합계		138,562,726	
모교지원비	경남고 야구부	18,900,000	1)경남고 야구부 패딩 외 지원비 18,900,000
이월금		119,662,726	1)은행 보통예금 119,662,726

2022년 사무국 예산서

수입		전년이월		회비계	
			48,913,355		
			170,000,000		
			130,000,000		
			40,000,000		
	계		218,913,355		
	모교지원금	경고	학년별 교사활동 지원비 1200만원+600만원	18,000,000	23,000,000
		경중		5,000,000	
	조직강화회비계				80,300,000
	회의비		집행위부회장(연 4회)		2,000,000
			운영위부회장(연 2회)		1,000,000
			고문·자문·부회장단(연 2회)		1,000,000
			동기회장, 직능, 동호 회장 및 국장 회의(연 2회)		4,000,000
			기별야구 조추첨 행사지원비/용마의밤 회의 등		1,000,000
	행사지원비		경기총회(코모도)		15,000,000
			경마회 격려 지원비 연 2회 500,000		1,000,000
			K-청마회 격려 지원비 연 2회 500,000		1,000,000
			8개 지구 격려 지원(기장 지구 제외) 연 2회 300,000		4,800,000
			직능&동호회 지원(10개) 지원비 연 1회 300,000		3,000,000
			5개 지역동창회 지원 연 1회 500,000		2,500,000
			동기회 지원(선착순 초대 5개 기수) 연 1회 300,000		1,500,000
			6, 16, 26, 36, 46, 56회 홈커밍데이 행사지원	500,000	3,000,000
			56, 57회 창립 지원	500,000	1,000,000
			용마의 밤 행사 지원(2019기준)		10,000,000
			개교80주년 기념 행사비(예산)지원		10,000,000
			기별야구대회 지원비		2,000,000
			용마골프대회 지원비		1,500,000
			용마골프 외부대회 출전 보조금 최대2회 1,000,000		2,000,000
			용마당구대회 지원		1,000,000
			용마바둑대회 지원		1,000,000
			용마바둑 외부대회 출전 보조금 최대2회 500,000		1,000,000
			용마코러스 지원비		1,000,000
	홍보비				3,000,000
	경조 화환비				4,000,000
	교통비				2,000,000
	일반관리비계				109,670,050
			장학재단 임대료 월 165만원x12개월	5층과 6층	19,800,000
			인건비(사무국장+여직원 1명)		58,606,200
			퇴직적립금		4,883,850
			복리후생비		2,400,000
			사무국 업무추진비		3,600,000
			사무총장 교통비 및 판공비		2,400,000
			통신, 우편료		2,500,000
			인쇄도서비		200,000
			사무실 관리비		9,000,000
			사무실 소모품비		2,500,000
			공과금		1,500,000
			접대 소모품비(커피 외)		2,000,000
			컴퓨터운영비		180,000
			기타잡비		100,000
	예비비				5,943,305
	계				218,913,355

2022년 동창회보 운영예산서

수입		전년이월		회비계	
			16,680,073		
			90,000,000		
			15,000,000		
	계		121,680,073		
	회보제작 및 발송비				42,000,000
	운영비계				53,270,000
			회보담당 여직원 급여		21,480,000
			복리후생비		1,200,000
			퇴직금적립		1,790,000
			기획, 편집주간		24,000,000
			기획, 편집 주간 성과급(증명발행시) 50만x6회		3,000,000
			편집위원회의비		800,000
			출장, 교통비		1,000,000
	이월 및 예비비				26,410,073
	계				121,680,073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는 모교와 동문 사랑의 출발점”
“동창회보 구독료는 용마의 자긍심입니다!!”

야구후원회, 큰 반향...순탄한 미래 기대

유재진(22회) 초대회장 “한마음 한 뜻 모으자” 제1회 정기총회 개최, 임원안·회칙안 등 통과

경남중고 야구후원회가 지난 1월 26일 오후 총동창회관 강당에서 제1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야구후원회 재창립을 알리고 출범식을 연 지 2개월여 만이다. 그동안 임원 선출과 회칙 제정 작업이 진행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임원안과 회칙안이 각각 통과되었다.

이날 정식으로 야구후원회 회장에 취임한 유재진(22회·벤츠-스타자동차 회장) 동문은 “재창립 초대회장이 돼 기쁘다. 모교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야구후원회가 재창립하게 된 것은 잊혀져가는 모교 야구 명성을 되찾자는 마음이 모여진 결과라고 본다. 야구부 발전과 더불어 동문 선후배 간 친목도 도모하고 우애를 돈독히 하며, 잊혀져

가는 얼굴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다. 회장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한 마음, 한 뜻을 모을 수 있도록 동문 모두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남중고 야구후원회가 지난 1월 26일 오후 총동창회관 강당에서 제1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임원 소개에 나선 조용철(38회) 실무위원장은 “생각보다 많은 호응이 왔다. 후배기수에서 후원에 많이 참여해 앞길이 밝다”고 말했다.

이 자리서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은 “출범식 때 적극 지원을 약속했는데 두 달 만에 조직이 짜여지고, 모금액이 1억원을 넘어서는 등 동문들의

큰 관심을 엿볼 수 있게 됐다”면서 “모교사랑기금과 야구후원금이 함께 잘 모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5장 17조로 제정된 회칙안은 이의 없이 만장일치 박수로 가결됐다.

지난 1월 26일 현재 후원 참여 동문은 182명, 모금액은 1억1,065만원을 기록했다. 이날 유 회장은 뒤풀이 경비 일체를 협찬했다. 박 수석부회장은 참가자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이날 발표된 임원진 및 실무진은 다음과 같다.

◇조직=▲임원-△회장 유재진(22회) △고문 구본능(21회) △수석부회장 박종찬(25회) △부회장 24회(변용준)부터 54회(조중완)까지 총 41명

▲실무위원회-△위원장 조용철(38회) △실무위원 정신(47회) 송승준(53회) △사무국장 김동주(51회) 사무차장 유영재(60회) △재무국장 최원석(46회) △홍보국장 이수환(37회) 홍보차장 정유석(51회) 이육한(55회) △감사 임태영(40회) 정용중(42회).

“모교 발전·야구부 명성 찾기 위해 뭉치자”

경남중고 야구후원회 유재진(22회) 회장 인사말



유재진 회장

가 같은 등지에서 태동했는데 사업장과 주거지가 다를 뿐이지 우리들의 마음과 목표가 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은 각자 하더라도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같은 것 아닙니까.

이번을 계기로 우리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며 사이 좋게 어울려 사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남의 이목도 있는데,

우리가 같은 형제인데 하나로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교의 발전과 야구부의 명성을 찾고 우리 동문 간에 우정을 더욱 공고히 합시다.

빠른 시간 내 자리를 하여, 단합된 우리들의 모습을 후배들에게 보여줍니다.

아무쪼록 모교 야구후원회가 성공적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 힘을 모읍시다. 회장을 맡은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 및 후배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출범한 경남중고 야구후원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모교 야구 발전과 야구 명문교의 전설을 다시 찾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몇몇 동문이 모여 의기투합하기로 하여 야구후원회를 재창립하게 되었

었습니다. 회장을 맡은 저는 두 가지 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교 야구가 명실상부하게 자존심을 찾고 긍지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모교의 명성을 다시 찾는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둘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평소 생각하는 점인데,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

경남중고 야구후원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경남중고등학교 야구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경남중고등학교 야구부를 후원하여 모교야구부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모교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회원의 구성) 회원은 특별회원, 정회원,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1. 특별회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10만원 이상 후원하는 회원을 말한다.
2. 정회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1만원 이상 후원하는 회원을 말한다.
3. 단체회원은 단체이름으로 후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장 기구

제4조(기구) 본회에 총회 및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
제5조(총회의 권한)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이사회에서 선임된 회장 추인 및 감사 선출.
제6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중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에서 소집을 의결할 때.
 - 3. 총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7조(총회의 결의) 총회의 결의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8조(이사회 의 기능) 이사회는 본 회의 사업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우수학생 선정.
2. 선수 스카우트 지원
3. 행사 예산 편성 및 결산서 작성
4. 총동창회장배 리틀야구대회 개최 주관
5. 후원금 지급시기 결정
6. 홍보 및 섭외 활동
7. 수익성 이벤트 주관
8. 모교 감독 선임에 대한 의견 개진
9. 야구 감독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매년 재계약한다.
(현재 경남중고등학교 야구감독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음)
(감독의 부정행위 적발 시 언제든지 학교장에게 통보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

- 제9조(이사회 의 구성) 고문,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실무위 집행부,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0조(이사회 의 소집)
1.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소집한다. 전반기 1회, 후반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수시 소집한다.

- 3.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제11조(이사회 의 결의)
이사회 의 결의는 출석 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 12조(사무국) 사무국은 실무위원회에서 관장하며 경야회 집행부 임원으로 구성한다.
1. 실무위원회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와 경리사무를 관장한다.
2. 사무국장은 경야회 사무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재무국장, 홍보국장, 홍보차장, 감사는 일반회원이 맡는다.

제4장 조직

- 제13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 약간 명 2. 회장 : 1명
3. 수석부회장 : 1명 4. 부회장 : 약간 명
5. 실무위원장 : 1명 6. 실무위원 이사 : 3명
7. 사무국장 : 1명, 사무차장 : 1명
8. 홍보국장 : 1명, 홍보차장 : 2명
9. 재무국장 : 1명 10. 감사 : 2명
- 제14조(임원 의 선출과 임기)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선출하며 총회에서 추인한다.
2.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3. 실무위원장은 경야회 회장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무위원은 경야회 회원으로 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5.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기사 9면에 넘김>



축 발전 경남중고 야구후원회 회장 유재진(22회)

우아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적 The new EQS를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스타자동차에서 만나보세요.



Mercedes-Benz

스타자동차의 판매 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139-1) /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대로 101-1) / (진주시 진주대로 101-1) / (통영시 통영대로 101-1) / (거제시 거제대로 101-1) / (김해시 김해대로 101-1) / (고성군 고성대로 101-1) / (거창군 거창대로 101-1) / (하동군 하동대로 101-1) / (남해군 남해대로 101-1) / (진주시 진주대로 101-1) / (통영시 통영대로 101-1) / (거제시 거제대로 101-1) / (김해시 김해대로 101-1) / (고성군 고성대로 101-1) / (거창군 거창대로 101-1) / (하동군 하동대로 101-1) / (남해군 남해대로 101-1)

2022년 야구후원 연금계약구좌수 현황표

2022년 2월 3일 현재

고문	21구본능	1000					
회장	22유재진	1200					
수석부회장	25박종찬	600					
특별 회원	부회장	24변용준	120	25김진철	120	26박상호	300
		28백영호	120	28김용희	120	29김대욱	120
		29이문열	120	30윤성덕	120	31오민철	120
		32이종휘	120	33박명진	120	35장인화	120
		36박진용	120	37허부남	360	38조용철	120
		38권두성	120	38정재형	120	39정순환	120
		39박근태	120	40우영환	120	41최영준	120
		42정용중	120	43강병규	120	44탁정환	120
		44김 황	120	44안병규	120	44강경호	120
		44윤상훈	120	44임정훈	120	44배봉건	120
		45김상수	120	45구자삼	120	46최원석	120
		47경 신	120	50정재우	120	51김동주	120
		51최우영	120	52서정수	360	52김민철	120
		53송승준	120	53이상훈	120	53김권우	120
		54조종완	120	55전민기	120		
		예우회원	15손부홍	100	17이수창	100	17배재욱
19임우근	12		20박용덕	120	24이명규	12	
정회원	9이 용	12	16이우재	12	16조길우	12	
	17김백수	50	18김길제	50	19장홍의	12	
	19이훈만	12	21안채식	12	21강수경	12	
	23김기열	12	24곽두희	12	24김도현	12	
정회원	25이명철	12	25재영성	12	25김길수	12	
	25김종현	12	25목동훈	12	25박광용	12	
	26김두천	12	26조만석	12	26이영학	12	
	27이요섭	12	28박종기	12	28안 풍	60	
	29이충원	60	29김종명	12	29이범익	12	
	29사공운	60	30정경목	60	31김종규	12	
	32정용운	12	32이성훈	12	33이윤조	12	
	33백수현	30	33이동근	24	34이성업	12	
	36임창섭	12	36최성필	15	36김창일	12	
	37김형기	12	37이수환	12	38김언규	12	
	38임성빈	12	38신동훈	24	38한민득	12	
	38김경곤	12	38박이현	12	38박정민	12	
	38윤경만	12	38조수용	12	38문귀상	12	
	38김태호	12	38이수관	12	39백기현	12	
	39김종업	12	39윤원욱	12	40임태영	50	
	41강 훈	12	41이양길	50	41윤형배	12	
43김종식	12	43김대영	12	44최 현	60		
44한수성	12	44정중운	60	44김성준	12		
44최주섭	60	44문형준	60	44김성훈	36		
45권우일	36	45진상영	12	46김백권	36		
46신경일	12	46이재광	36	46사승진	36		
47김기환	12	47최원창	12	47정운호	12		
47조덕만	12	47서정민	12	47최경훈	12		
47강백중	12	47정민호	12	47윤필호	12		
정회원	47김동휘	12	47배준수	12	47정준홍	12	
	47손효준	12	47차기혁	12	47경기주	12	
	47이 일	12	47장순재	12	50강봉규	12	
	51정유석	60	51구민석	12	51이정우	12	
	51오건진	12	51박보순	12	51신현식	12	
	51최환석	12	52최문성	36	52한중현	12	
	52김현진	12	52허근영	12	53김경남	12	
	54고지현	12	54김영빈	12	54임길환	12	
54김태완	12	54이동하	12	54김대진	12		
55김현달	36	55이욱한	12	55황현중	12		
55김태현	12	55권세호	12	55이동주	12		
55박찬우	12	55박경민	12	55장지훈	12		
55황시우	12	55이동욱	12	55황보영	12		
55최범준	12	55최유성	12	55이동규	12		
55허 준	12	55박기홍	12	55고운성	12		
55강문성	12	55백광일	12	55최성원	12		
56장재환	12	56심세준	12	58박찬영	12		
59김성수	12	60김현중	12	60최규환	12		
60유영재	12	60김현우	12	61김재용	12		
62한 민	12	62이재근	12	74최준용	12		
단체회원	거제지역동문회		120				
총 참여인원 : 198명		총 금액 : 117,410,000원					
야구후원회 계좌 (부산은행) 101-2077-9886-02 유재진							

<기사 8면에서 받음>

제15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총회와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감사는 회무집행과 경리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와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며, 평상시에도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6조 (재정의 수입-총동창회 및 모교의 관련 재정은 참고로 활용)

- 총동창회에서 각 기수별로 부과되어 납부하는 야구후원금.
- 야구후원회 회원들의 계좌이체 후원금.
- 프로야구 진출 동문의 모교사랑 감사비
- 수익성 이벤트사업 수익금.
- 수시 후원 기부금
- 재경 동창회 및 기타 지역동창회의 모교 야구후원금

제17조 (재정의 지출)

- 야구부의 훈련비, 장비비 및 대회 출전비
- 모교 야구의 육성지원에 대한 지출
- 감독, 코치 연봉 일부 지원
- 선수 스카우트 지원.

- 홍보비 포함 사무국 운영비 지출
- 야구지원금 금액 비중 경남중학교 15%, 경남고등학교 85%
- 총동창회장배 리틀야구대회 운영비는 별도로 모금하여 지출한다.
- 긴급후원 요청 시 회장의 결재로 지출하고 추후 이사회에서 승인을 득한다.
-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 조 본 회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골곡의 근현대사 만큼 복잡다단한 모교 입시제도 변천

학교장 관리, 국가연합 고시제, 시도별 공동출제, 추첨제 등 다양

경남중, 1970년부터 무시험 추첨제 시행
경남고, 1997년부터 연합고사 폐지·추첨

■ 모교 입시제도 변천과정

모교 경남중·고등학교 역사는 한국근현대사의 일환에 틀림없다. 입학생 선발과정은 대한민국의 입학제도 변천사(史)와 궤를 같이 했다. 해방 직후에는 일제하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 1942년에서 1945년 3월까지 일제하에서 학교장의 관리 아래 학생을 선발했다. 1945년 5회 입학은 해방전 입학과 해방 후 입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입학시험은 한국전쟁 전까지 학교장의 책임 하에 관리했다.

1950년 10회 입학 시까지 모교는 6년제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토성동 경남중학교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했다. 1946년 10월 31일(목) 지금의 경남중학교 자리로 이전한 이래 입학식 때면 당시 학생회 산하 특활부서로 맹활약 중이던 경남중학교 악대(브라스밴드)가 경쾌하고 장엄한 연주를 앞세워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당시 밴드부에 아마추어 이상의 실력자도 적지 않았다.

문교당국의 학기제 변경에 따라 1950년에 한하여 신학기를 6월 1일부터 시작하고, 1950년 5월 중에 졸업식(4회)을 했다. 1951년 9월부터 학제가 바뀌어 1950년도 재학생 3학년은 입학시험을 치러서 고등학교 1학년(8회)이 되고 4학년은 2학년(7회), 5학년은 3학년(6회)으로 경남고등학교(당시 부산제일고등학교)에 편입되었다.

6년제 경남중학교는 3년제 부산서중학교와 부산제일고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1953년에 다시 경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로 환원했다.

1951년부터 국가연합 고시제가 3년간 실시됐다. 학생선발권은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필답고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실력을 측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고시제를 폐지하고 1956년까지 중학교 단독으로 입학시험을 치렀다.

1945년 해방 이후 1970년 중학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경남중고등학교는 최고의 인재들이 몰려 치열한 입시경쟁을 벌였다. 우수한 학생 간의 경쟁이었으며 일류중학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훌륭한 선생님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모교는 입시 경쟁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들었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대한민국의 동량이 되었다.

한편 사회적인 문제도 있었다. 중학교



1963년 2월 9일자 부산일보에 게재된 경남중 입시 합격자 명단.



1963년 2월 경남중 입시 면접 모습.

진학률이 높은 일부 국민학교를 중심으로 일류 국민학교군이 형성되었으며, 국립국민학교와 사립국민학교 간의 경쟁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중학교 입학에 대해 국민(초등)학교 때부터 입시과외가 시작되었으며 교사 과외가 사회문제화 되자 6학년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학원정화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경남중 입학에 대해 재수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입학시험 후 합격자 발표는 당시 지역 사회는 물론 전국적 관심사였다. 라디오 방송은 말할 것 없고, 학교 게시판에 수험번호를 적어 발표했다.

이 시절 경남중학교 쌍백선 교복은 학부모는 물론 부산 시민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1970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과 가까운 중학교 한 곳을 고르는 학교배정 추첨은 아이들이 스스로 추첨기를 돌려 당첨된 구슬에 따라 진학할 중학교를 결정했다. 중학교 무시험제 도입 이후 중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을 ‘뽕뽕이 세대’라 부른 것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1973년 ‘고등학교 입시제도는 학군제, 과정별 지원, 추첨배정으로 한다’는 내용의 ‘고교평준화 정책’이 발표됐다.

입시제도 변천과정

연도	제도	비고	입학기수
1942-1945년	학교관리제	중학교장의 관리하에 필답시험성적, 체력장, 세금납부증명서, 부윤(시장)·도지사 표창장, 학교장추천서 등	1-5회
1945-1950년	학교관리제	중학교장의 관리하에 필답시험 성적과 국민학교(지금 초등학교)의 내신서, 구두시험, 신체검사에 의해 선발	5-10회
1951-1953년	국가연합고시제	전국학교가 동일 출제로 시험	11-13회
1954-1956년	내신필답 합산제	학교관리제로 환원 필답고사, 신체검사, 면접점수	14-16회
1957-1961년	무시험 전형제, 연합출제 병행제	연합출제 필답고사, 신체검사, 면접점수	17-21회
1962-1963년	국가고시제	4지선다형, 체능검사실시, 면접	22-23회
1964-1965년	시도별 공동출제제	1964년 중학교는 국어, 산수 고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 필답고사, 체능검사	24-25회
1966-1969년	공동·단독출제제	필답고사, 체능검사	26-29회
1970년-현재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	1966-1973년 고등학교 공동·단독 출제병행제도	경남고 23-30회
1970년	토성중학교 교명 변경 경남중 29회-48회	1974-1997년 고등학교 연합고사 및 추첨병행제	경남고 31-54회
1992년	경남중학교 교명 환원 경남중 49회-현재	1997년- 현재 고입연합고사 폐지 추첨배정제	경남고 55회-현재



부산일보에 실린 1967년도 부산·경남 중·고교 입시요강.



체력장 시험 대비한 연습 장면.

1974년부터 적용되었다. 학교에 응시하여 시험을 보던 방식이 사라지고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학교를 배정받게 되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열기도 예전 같지 않았다. 학생들이 고교 입학부터 경쟁에 내몰리던 풍토는 개선되었으나,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부작용이 제기됐다.

모교는 평준화 이후에도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면학분위기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사회에 진출하여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1951년 학제변경으로 중·고교가 분리되었으나, 경남중고는 하나의 학교로 이어져 왔고 한 동문으로 구성되었다. 이것이 경남중고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경남중만, 경남고만 나왔다고 동문들이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여 서로 존중해 주는 좋은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된

다. 교가와 응원가가 같은 학교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경남중고 동문들은 정계, 경제계, 학계, 언론, 문화, 체육, 국방 등 다방면에서 걸출한 능력을 발휘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을 모두 배출한 우리나라 유일의 학교이다.

경남중고 출신의 동문들의 모교 사랑과 자긍심은 입학제도와 관계없이 오늘도 이어져 오고 있다. 명문 경남중고 100년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할 일만 남았다.



글=이요섭(27회) 경남중고 총동창회 모교80년사 편찬위원회 편집위원

기부자 리스트

수시기부시스템에 따른 협찬동문 총원 명단 (500만원 브론즈급 이상 등급부여자 명단은 별도 : 2021년12월31일 기준)
12/31 기준 모교사랑기금, 용마골프대회 협찬금, 회보 광고료 모두 포함 한 금액

※붉은 숫자는 회관구입기금, 모교사랑기금 모금에 참여한 금액

Table with 20 columns: 기수, 이름, 2020년 까지 총액, 2021년 기여. It lists donor names and their contributions in multiple columns.

기부자 리스트

수시기부시스템에 따른 협찬동문 총원 명단 (500만원 브론즈급 이상 등급부여자 명단은 별도 : 2021년12월31일 기준)
12/31 기준 모교사랑기금, 용마골프대회 협찬금, 회보 광고료 모두 포함 한 금액

*붉은 숫자는 회관구입기금, 모교사랑기금 모금에 참여한 금액

Table with 20 columns: 기수, 이름, 2020년 까지 총액, 2021년 기여. Contains 20 columns of donor data across 10 groups of 20 donors each.

지역·지구 동창회



강서지구동창회 집행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총동창회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강서지구 “총동창회 발전 앞장설 터”

강서지구동창회 집행부는 지난해 12월 29일(수) 오후 총동창회관 내 우미옥식당에서 총동창회장과 의 간담회를 가졌다. 강서지구에서 김종규(31회) 회장을 비롯, 이병훈(32회) 부회장, 이수관(38회) 사무국장, 김성준(44회) 사무차장이 참석했다. 총동창회에서는 김대옥 총동창회장과 현응열 사무국장, 김종명 동창회보 편집주간(이상 29회), 윤원욱(39회) 사무국장이 자리했다.

김 총동창회장은 이 자리서 강서지구의 활발한 활동을 치하하고,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더 왕성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강서지구 회장은 “강서지구가 모범이 되어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실무차원에서 현 사무총장은 “동창회보 운영이 적자일로에 있다. 강서지

구가 모범이 되어 동창회보비 납부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서 이 강서지구 부회장은 황진이 시조를 낭독했고, 김 사무차장은 처음 총동창회관을 찾은 소감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총동창회는 격려금을 전달했다. 김 강서지구 회장은 이날 식비(40만원 상당)를 찬조했다.

강서지구, 부회장 4명 체제로

강서지구동창회(회장 김종규·31회)는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강서지구는 올해부터 부회장을 4명으로 늘려 조직을 강화키로 했다. 수석부회장(차기 회장 내정자)에 이병훈(32회), 부회장 김재성(35회·신임) 정재형(38회), 신설 청년부회장 김백권(46회) 동문을 각각 임명했다.

중부산지구 “2022년 모범 되는 모임 되자”



중부산지구동창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임원 송년회를 개최했다.

중부산지구동창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총동창회관 내 우미옥식당에서 임원 송년회를 가졌다.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모임을 갖지 못하다 임원진만으로 송년모임을 연 것이다.

이날 이영학(26회) 중부산지구 회장은 “새해에는 회원 모두가 함께 얼굴을 맞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길 기원한다. 총동창회관이 자리하고 있는 중부산지구가 2022년에는 더욱 모범이 되자”고 말했다.

이날 총동창회장을 대신하여 현응열(29회) 사무총장은 “총동창회 발전에 중부산지구가 앞장서주길 바란다.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총동창회는 이날 격려금을 전달했다.

부산진·연제지구 “새해 전체 모임 행사 기원”

부산진·연제지구동창회는 지난해 12월 10일(금) 오후 서면 중국집 동보성에서 집행부 송년회를 총동창회 사무국과 함께 가졌다. 방역수칙에 따른 인원수 제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 부산진·연제지구에서는 이윤조(33회) 회장을 비롯, 김법영(33회) 고문, 박진용(36회) 부회장, 백기현(39회) 홍보부장, 김병기(39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부산진·연제지구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모임이 여의치

않아 활력이 다소 떨어진 느낌”이라며 아쉬움을 표하고, “새해 코로나19 기세가 꺾여 전체 모임을 가질 수 있길 기원한다”고 바람을 말했다.

김대옥(29회) 총동창회장을 대리한 현응열(29회) 사무총장은 김 총동창회장의 격려의 말을 전하고, “동문 간 만남은 못하더라도 SNS 소통은 잘 되도록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이날 총동창회는 격려금을 전달했다. 박 부산진·연제지구 부회장이 식대 전액을 찬조했다.



부산진·연제지구동창회 집행부 송년회가 지난해 12월 10일 열렸다.

북부산지구 “총동창회에 최선 다해 협력”

북부산지구동창회는 지난해 12월 16일(목) 오후 북구 화명동 징기스 부산화명점에서 집행부 송년회를 총동창회 사무국과 함께 가졌다. 북부산지구에서는 박창제(35회) 회장을 비롯, 박동렬 차기 북부산지구회장 예정자(35회), 최현덕·한수성(이상 44회) 부회장, 신종국(49회) 사무국장, 그리고

이현우(48회·징기스 부산화명점 대표) 동문이 참석했다. 총동창회에서는 김대옥 총동창회장, 현응열(이상 29회) 사무총장, 윤원욱(39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김 총동창회장은 “마음으로 다가가는 동창회를 만들려고 노력한다”면서 “하나 된 동창회, 많은 동문이 참여하는 동창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박 북부산지구 회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상처가 깊다. 모임을 거의 갖지 못했다. 총동창회에 협력할 일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총동창회는 이날 격려금을 전달했다.



김대옥 총동창회장이 북부산지구동창회 박창제 회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다.

김해지역, 총동창회장과 간담회



김대옥 총동창회장이 김해지역동창회 박원곤 회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다.

김해지역동창회 집행부가 총동창회장과 의 간담회를 지난 1월 20일 오후 김해 고기야지트 식당에서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전날 정기총회에서 김대옥(29회) 총동창회장이 김해지역 동문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자, 김해지역 동문들이 지난해 김 총동창회장의 김해 방문이 없었던 점을 들어 내방을 요청한데서 성사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해지역에서 박원곤(32회) 회장, 차의수(29회) 고문, 김기덕(37회) 사무국장 등이, 총동창회에서는 김 총동창회장과 현응열

(29회) 사무총장, 윤원욱(39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김 총동창회장은 “새 임기 시작 첫 행사로 김해지역을 방문해 기쁘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자주 방문하겠다”면서 모교사랑기금 모금과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김해지역동창회가 총동창회와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며 각종 행사 적극 참여 등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총동창회는 이날 격려금 50만원을 전달했다.



전국 최고 시설 안과로 도약 위해 분원 확장개원

10개 센터 완벽한 협진시스템 가동...첨단 장비 자랑
“봉사와 선행 ‘참사랑’ 실천...모교·동창회 발전에 최선”

**박진용(36회)
굿모닝성모안과 병원장**

안과전문의 박진용(36회) 동문이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도 미래를 위한 도약의 기치를 내세웠다. 서면 로터리 KB국민은행 빌딩(4~7층)에서 ‘굿모닝 성모안과의원’ 대표원장으로 활약 중인 박 동문이 지난 1월 중순 야심차게 인근의 하나은행 빌딩(8~10층) 내에 분원 확장개원을 했다. 박 동문을 만나 그의 도전정신과 삶의 태도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번 분원 확장개원으로 전국 최고의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분원 확장개원 동기가 있는지요?

▲굿모닝 성모안과는 2000년 개원 이래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종사자들의 헌신적 노력 덕분입니다. 지금과 같은 성장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노력과 변화, 그리고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분원 확장 개원을 통해 굿모닝 성모안과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향상시키고, 우리의 슬루션이 전국 안과의 표본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비전과 목표를 세웠습니다.

-본원과 분원의 업무 영역이 구분돼 있습니까?

▲본원은 노안백내장센터, 스마일센터, 라식/라섹센터, 건성안센터, 녹내장센터, 망막센터, 드림렌즈/렌즈센터, 사시/소아안과센터, 성형안과센터, 안질환센터 등 10개 센터가 완벽한 협진시스템을 가동 중입니다.

분원은 △수술 전 정밀검사 클리닉(8층) △수술 후 입원 및 회복실(9층) △안 종합 수술 클리닉(10층)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각 층마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호텔급 편의 시설이 완벽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몇 명이나 되나요?

▲저를 포함한 14인의 진료별 전문 의료진과 150여 명의 스테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3년 동안 풍부한 임상경험으로 얻은 수술 노하우와 대학병원급 장비 보유, 분야별 협진 진료 시스템을 통해서 보다 나은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의 시설을 갖춘 병원에 걸맞은 환자 유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요?

▲의료관광 거점인 부산 서면에 위치하면서 23년간 환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질환 종류나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안종합병원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를 모셔서 협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병원의 공공성을 먼저 생각하고, 설립 이념에 충실하다 보면 환자의 신뢰도와 브랜드 충성도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첨단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까?

▲대학병원급의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중



안과병원 분원 확장 개원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전국 안과의 표본이 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운 박진용 동문.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굿모닝성모안과의 수술 전 정밀검사실 모습.



굿모닝성모안과의 첨단 안종합수술실.

에서 먼저 3D 올레이저 다초점 수술 장비인 카탈리스가 있습니다. 백내장은 물론 노안, 근시, 난시, 원시까지 한 번에 개선하는 All in one 레이저 수술입니다. 백내장 수술 시 합병증 발생이 가장 많은 부분을 레이저로 정확하게 절개한 후 특수 인공수정체를 안정적으로 삽입하여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해 노안까지 교정, 50대 이상의 환자도 돋보기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근거리에서 원거리까지 깨끗한 시력을 갖게 됩니다.

세계적 명성의 스위스 Ziemer사에서 직접 설계, 제조, 생산한 장비 Z8이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장비입니다. 대학병원을 포함해서 두 장비를 갖춘 안과병원은 거의 없을 정도로 고가의 최첨단 장비입니다.

그리고 각막절편을 만들지 않는 스마일 라식에는 비쥬맥스(VisuMax)라는 독일 자이스(ZEISS)사에서 개발한 펄토세컨드 레이저 장비를 사용하는데 수술 후 다음날 세안과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최첨단 시력교정 장비입니다.

-총동창회의 각종 행사에 거의 빠짐없이 협찬을 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부산시로부터 ‘모범선행시민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같은 기부와 봉사와 관련해 어떤 소신 같은 게 있는지요?

▲‘모범선행시민상’은 지금보다 더 열심히 봉사와 선행을 실천하라는 의미로 받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료 백내장 시술을 하며 참된 의료봉사활동을 하는 실로암안과병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참된 사랑의 실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굿모닝성모안과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기도하

고 있습니다. 훗날 세계 곳곳에 병원과 학교와 고아원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노안이나 백내장 같은 질환을 갖고 있는 연로한 동문의 눈 건강을 위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백내장은 치료가 아주 시급한 질환은 아니고 백내장 수술 시기는 보통 환자가 불편해서 치료를 원할 때가 적기입니다. 그런데 임의로 치료를 계속 미루면 안 됩니다. 적절한 치료시기에 수술을 받아야 치료가 빠르고 그에 따라 회복 속도도 빨라집니다. 백내장 수술은 수술하기 좋은 때를 놓치게 되면 합병증이 나타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수술 후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평소 자기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술 취하지 않기, 둘째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며 새벽제단 쌓기, 셋째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입니다. 이 원칙들을 지킴으로써 저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총동창회 집행위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한마디 해주십시오.

▲총동창회는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선배님들의 모교에 대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동문 여러분들의 관심과 후원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이 같은 성과가 헛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동문들과 단합하여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심 속 잘 갖추어진 운하의 특성 살려 활용해야

동천

부산의 하천, 이제와 오늘 ③

--'숨쉬는 동천' 대표 이용희(34회) 동문 기획탐방--



옛날에는 수량 풍부해 범일동에 선착장...배 드나들어 지천·소하천·구거들 관리, 악취와 수질문제 해결 절실

삼포지향(三抱之鄕) 부산은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는 생태도시 요건이 충분하다. 그 조건 중 부산은 도심 속에 하천이 많다는 것이다. 부산의 하천들 중 동천(東川)은 부산 제일의 도심하천으로 꼽힌다. 부산의 최종심지인 서면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천은 백양산 선암사 뒤 동천발원지 표지석이 있는 곳에서 시작해 부산 정중앙 표지석 앞을 지나 부산의 최고 중심지인 서면을 관통하면서 부산진구(당감동, 부암동, 부전동, 범천동), 남구(문현동, 동구(범일동, 좌천동)를 스치고 북항 바다로 빠져나간다. 지방하천으로서 도시의 홍수예방을 위한 통수단면(通水斷面)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약 10km 길이의 동천이 개봉(開腹)된 곳은 최상류의 일부 구거(=당감천)구간과 하류 약 2.7km 구간이다. 나머지 약 6km의 중류와 상류는 콘크리트가 덮여져 있다. 소위 '지하박스'라 불리는 복개(覆蓋)구간으로 그 위에 동서고가도로가 놓여 있다.

백양산의 동천 상류 일대는 광나무, 국수나무, 꽃생강나무, 도토리나무, 떡죽나무, 소나무, 오리나무, 율나무, 은행나무, 쥐똥나무, 향나무, 후박나무 등이 있으며, 1~3급수 생물인 다슬기, 도롱뇽, 민달팽이, 민물가재, 옆새우 등도 살고 있다. 생물다양성과 연결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곳이다.

동천은 백양산 외에 황령산과 엄광산을 접하고 있지만 건천(乾川)이고, 하류 개봉구간은 대부분 바닷물로 채워진 기수지역으로 11개의 교량(광무교, 범4호교, 골든브리지, 성서교=범3호교, 무지개다리=범2호교(섞은다리), 범5호교, 오작교, 범일교, 하구교, 부두교, 동천교)이 있는 감조구간이다.

자연하천이었던 동천은 대지를 굴착하고 매립하여 운하화(運河化) 하천으로 계획 조성해서 인공수로화(人工水路化)가 되어 지금처럼 인공적인 하천형상으로 만들어졌다. 하구가 넓고 수량이 풍부했던 동천은 옛날에는 보만강(寶滿江), 풍만강(楓滿江)으로도 불렸으며, 범일동에 선착장이 있어서 배들이 바다로 드나들었다. 부산항의 북항 바다로 직접 흘러들었던 영주천, 초량천, 유천, 부산천, 범일천, 동천 중에는 이미 사라진 하천들도 있고 동천처럼 지방하천들도 있다. 지금은 북항 바다와 북항재개발에 있어서 동천이 제일



① 하늘에서 내려다본 동천. ② 문현금융단지 옆을 흐르는 동천에 설치한 분수. ③ 동천 정비작업 모습.

주요 하천이다. 동천으로 합류되는 4개의 지천(支川)에는 약 1.7km 호계천, 약 2.6km 전포천, 약 4.2km 부전천, 약 3.2km 가야천이 있는데 모두가 복개된 지방하천이다. 문현천, 견우천, 당감천처럼 동천 줄기의 소하천과 구거들도 복개되어 있다.

매년 수많은 사업예산으로 동천의 수질개선과 복원사업들이 진행되어 오면서도 악취제거, 탁도개선, 심미적 불쾌감 해소 등에서 실효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은 4개의 지천들과 소하천, 구거들을 지속적으로 실질적 관리와 연구계획을 못했던 것이 큰 이유일 수 있다.

동천 하류의 개봉구간에서 악취와 수질문제 때문에 5만t 해수도수(海水導水) 공사(약 120억원)가 있었는데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2017년 생태하천 복원과 수질개선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20만t 해수도수 공사(약 280억원)가 또 있었다. 지난해에는 상류에 있던 구거를 소하천으로 만들지 않고 복개해 버

린 것을 보아도 성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음을 느낄 수 있는데, 지금도 앞으로 계속해서 비점오염 저감시설과 저류조 등의 여러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거나 계획되어 있다. 2년 계획의 20만t 해수도수 공사를 4년이나 걸려서 완공을 했지만 올해 1월까지도 동천에는 공식적인 개통식 없이 해수도수로 바닷물을 흘리고 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017년과 2021년의 수질을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비교 조사로써 개선되었다는 결과(2017년 3~6월에 범4호교 7.7ppm, 성서교 6.1ppm, 범일교 7.7ppm인데 2021년 3~6월에는 범4호교 2ppm, 성서교 3.2ppm, 범일교 4.2ppm)를 발표했다. 2010년 5만t 해수도수 개통 직후에는 승어잡이 낚시대회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개최했던 적이 있고, 20만t 해수도수 완공 직후인 지난해 말에는 다량의 해조류와 희귀어종인 대형 지느러미오징어가 나타났다. 2010년처럼 한차례만의 소동이 아

니었으면 좋겠다.

동천 유역에서 문현국제금융단지의 개발과 북항재개발 지역에서 2030세계박람회(부산월드EXPO)의 유치 계획이 있다. 동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동천은 백양산 화산활동의 국가지질공원을 담고 있으며 패총 흔적, 대증현, 동평성, 부산진성, 영가대, 부산포 등의 역사도 안고 있다. 우리나라 근대 산업경제 근원지로서 수출과 창업지역의 태동지이다.

바다에서 배를 타고 동천으로 들어오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부산은행 본점, 부산상공회의소가 자리잡고 있다. 옛 이름의 기업들 경남모직, 국제고무공업사, 금성사, 남선도로상회, 대선양조, 대양고무, 동남은행, 동명목재상사, 동산유지공업사, 동양고무, 동화화학공업사, 락희화학공업사, 미원식품공업사, 보생고무, 송월타올공업사, 삼화고무, 신진자동차공업사, 제국제마, 제일제당공업, 조선방직주식회사, 진양고무, 태광산업, 태화고무, 태화백화점, 한일합성섬유공업, 향도투자금융, 흥아고무공업 등이 동천 물과 함께 흘러갔다.

조선시대 승정원일기를 보면 한양의 도성 안에 호랑이가 출몰했었다는 내용을 자주 접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표범이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을 보면 그때 사람들은 호랑이와 표범을 함께 범(凡)이라고 불렀던 것 같다. 호랑이는 단군신화에서도 나오는데 올해가 범띠 호랑이 해이다. 판소리 수궁가의 '범 내려 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로 시작하는 대목에서처럼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옛날의 동천에서는 호랑이가 자주 출몰했다 한다. 그래서 동천의 물줄기에는 범천, 호천, 호계천으로 불린 소하천과 범곡, 범내로 불린 동네가 있었으며, 오늘날까지 동천유역에는 범일동, 범천동, 호천마을 등이 있다.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고 배의 운항을 위해서 만든 인공수로를 운하라고 하는데 동천은 부산의 최종심지인 도심 속에서 잘 갖추어진 운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부산은 동천을 잘 활용해야 한다.

사랑과 우정의 '겨울 연가'...무대와 객석이 함께 '울컥'



용마코러스 제5회 정기연주회가 지난해 12월 7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렸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팬데믹도 비켜라” 역경 딛고 감동의 하모니 엮어내

은퇴 안창범(18회) 단원에 공로패

용마코러스제5회정기연주회성료

“코로나19 팬데믹도 이들의 의지와 열정을 꺾지 못했다. ‘사랑과 우정’이란 이날 주제는 단체의 존재 이유와 맥을 같이 하며 행사를 떠받쳤다. 방역지침으로 제대로 된 합동연습을 갖지 못했지만, 그동안 이들의 가슴 속에는 이 주제가 불타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7일 오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린 경남중고 용마코러스 제5회 정기연주회가 안겨준 감동을 표현했다. ‘경남중고인(人)’이라는 강한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사명감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공연이었다.

특히 이번 연주회에는 용마코러스 단원들로 구성된 2개의 중창단이 중간 무대에 각기 멋진 공연을 펼쳐 코로나19로 다소 위축된 합창단의 활력을 되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방송인 김경진(44회) 동문이 사회를 맡아 ‘익살재능’을 과시하며 관중을 유쾌하게 리드했다.

1, 4부 무대는 코러스 무대. 1부는 사랑을 주제로 ‘그대는 내 모든 것’ ‘사랑하는 마음’ ‘아름다운 내 사랑’이 울려 퍼졌다. 4부에는 우정을 주제로 ‘향수’ ‘그대 눈 속의 바다’(곡중 솔로 주형기), ‘친구여’(KBS드라마 ‘전우’ OST 수록-곡중 솔로 안승진)가 연주됐다.

2부는 중창단 ‘Sing Sing 브라더스(지도 전상건)’의 감동의 무대였다. 용마코러스 역대 단장을 비롯, 멤버 9명 참가 시니어그룹으로 지난해 결성됐다. 그룹 명칭에 ‘노래 부르는 젊고 싱싱한 오빠’란 의미가 담겨 있다. ‘Happy Days Are Here Again’ ‘내 맘의 강물’(곡중 솔로 안창범·노덕현·장춘식) 두곡을 선사했다. 시니어들의 가창력에 관중들



용마코러스 중창단 ‘Sing Sing 브라더스’의 중후한 연주 모습.



용마코러스 중창단 ‘양상블 라온아제’의 활기찬 연주 모습.



용마코러스를 떠나는 안창범 단원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김대욱 총동창회장(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용마코러스 정기연주회장을 방문, 격려했다.

은 매료됐다. 양코르곡으로 보컬 해바라기의 ‘행복을 주는 사람’이 연주됐다.

3부는 중창단 ‘양상블 라온아제’(지도 박소미)의 활기차고 흥겨운 무대였다. 가수 이문세 노래 메들리를 들고 나왔다. 쉽게 접하지 못하는 중창의 묘미를 잘 풀어놓았다. 중창단 라온아제는 2019년 ‘어찌다양상블’이란 이름으로 출발했다. 두 번째 공연인 이번 연주회에 새 이름을 달았다. ‘라온’은 ‘즐거움’이란 뜻의 순수 우리말.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노래하자는 의미가 담긴 명

칭처럼 이들은 관중을 감동시키며 박수를 받아냈다.

합창단은 이날 양코르곡으로 팝 발라드 ‘What a Wonderful World(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를 선물했다. 거의 만 2년이 다 되어 가는 코로나19 사태에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끽할 날을 함께 꿈꾸자는 의도가 읽혀졌다.

용마코러스는 이날 3부 연주 후 서울로 이주하게 된 안창범(18회·전 동의대 한의학과 교수) 단원에게 공로패 수여

식을 가졌다. 제2대 단장을 역임한 안동문은 창단멤버로 합창단이 초석을 놓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 자리서 단원들의 손편지가 전달됐다. 안동문은 학창 시절의 음악과 관련된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음악은 치유의 효과가 있다. 지난 8년 후배들과 좋은 시간을 가져 기쁘다. 함께한 시간들을 생생하게 오래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연주회 시작 전 합창단원을 만난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정기연주회를 갖는데 경의를 표한다. 용마의 저력을 느낀다”면서 “용마코러스의 왕성한 활동이 총동창회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상규(31회) 용마코러스 단장은 무대 인사에서 “연주회 준비에 어려움이 많았다. 모교를 대표하는 합창단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 합창과 중창을 섞어 다양함과 재미를 추구했다”고 말했다.

총동창회 밴드에 이번 연주회가 태어나 처음 공연 관람이라는 구자삼(45회) 동문은 “이런 감동이 있나 싶을 정도로 가슴이 찡하도록 느꼈다”고 서술했다. 한때 합창단에 기웃했던 이상구(50회) 동문은 밴드에 올린 영상을 듣고 “살짝 눈물이 고인다”며 감동을 표현했다. 박근태(39회) 용마코러스 사무국장은 “안창범 선배님 공로패 전달식에 이어 노래 ‘향수’까지 불러 눈물이 날 뻔했다. 동문의 우정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멋진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연주회에는 김총동창회장을 비롯, 변일수(16회·전 용마코러스 단원) 박종찬(25회·고문) 현응열(29회·사무총장) 윤원욱(39회·사무총장) 최영준(41회·경미회 회장) 구자삼 조태성(이상 45회) 신현식(51회) 이욱한 장지훈(이상 55회) 동문 등이 참가했다. 내빈으로 백영선 경남고 교장, 김지연 경남여고 수정합창단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합창단원인 신봉준(42회) 동문은 무대감독을 맡아 봉사했다.

총동창회는 이날 격려금을 전달했다.

- ◇정기연주회 출연 단원=*지휘 조성빈(47)
- *반주 박소미 *테너1-장춘식(20회) 최상규 김형수(이상 31회) 박근태 안승진(이상 39회) 김황 최현(이상 44회) 노재훈(50회) *테너2-안창범(18회) 김원철(38회) 안병규 문형준 탁정환(이상 44회) 백광선(50회) 조용수(52회) 김현운(58회) *베이스1-정용식(31회) 손수범(35회) 전상건(35회) 심재민(38회) 김병기 노성수 백기현(이상 39회) 김동원(41회) 박형규(43회) 김백권(46회) *베이스2-노덕현(19회) 신동훈(38회) 이상학(39회) 주형기(45회) 김석훈(50회) 이시원(51회).
- ◇Sing Sing 브라더스 멤버=안창범 노덕현 장춘식 김형수 정용식 최상규 전상건 김원철 심재민.
- ◇양상블 라온아제 멤버=김경진 김황 문형준 안병규 최현 탁정환.

덕형리그 신임회장에 이윤조(33회) 동문

이문열(29회) 전임회장 '7년 열의'로 초석 다져 귀감

2021년 납회식...44회 단체 우승

덕형리그는 지난해 12월 23일(목) 오후 덕계 금천중식당에서 2021년 납회식과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덕형리그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리그 자체가 개막과 동시에 중단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2021년에는 약식으로나마 리그전을 가질 수 있어서 나름대로 수확을 거둔 해였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날 납회식에서 2021년 시즌 시상식이 열렸다. 단체 성적 1위 44회, 2위 40회A, 3위 38회 순이었다. 개인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실버리그 수상자=이수관(38회) 다승왕(5승 7경기 방어율 5.00), 황정후(41회) 타격 1위(6게임 17타수 10안타 0.588) △블루리그 수상자=권상근(44회) 다승왕(3승 5경기 방어율 1.56), 박정진(53회) 타격 1위(5게임 15타수 11안타 0.733).

이어 열린 회장 이취임식에서 지난 7년 동안 덕형리그를 위해 물심양면



덕형리그 회장 이취임식에서 이윤조 신임회장(왼쪽)이 이문열 전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하고 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많은 정성과 열의를 쏟았던 이문열(29회) 전임회장은 “덕형리그에 많은 애정을 갖고 단체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한다. 오늘 이나마 덕형리그가 자리매김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곁에서 사랑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윤조(33회) 신임회장은 “총동창회 산하 주요 직능단체장이란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덕형리그가 오늘



덕형리그 납회식 및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해 12월 13일 열렸다.



덕형리그 납회식에서 단체 수상팀 대표들.



덕형리그 납회식에서 개인 수상자들.

이렇게 우뚝 설 수 있게 초석을 다진 이문열 전임회장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더욱 내실을 다지고 외연을 넓혀 그야말로 최고의 아마추어 야구리그가 되고, 이 기운이 총동창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서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

은 격려사에서 이 전임회장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덕형리그가 총동창회 산하 조직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총동창회의 발전에도 기여해 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함께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총동창회는 이날 격려금을 전달했다.



용마산악회 정기총회가 2년 만에 열렸다.

33산우회, 제주 노꼬메 900차 산행



33산우회가 900차 등반으로 제주도 노꼬메 오름을 올랐다.

용마산악회 새 회장에 서석권(35회) 동문

2년 만에 정기총회...“새해엔 함께 산행” 기원

용마산악회가 지난해 12월 28일(화) 오후 총동창회관 강당에서 2년 만에 정기총회를 갖고,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던 서석권(35회) 동문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김법영(33회) 전임회장으로부터 회기를 전달받은 서석권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용마산악회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색다른 경험이라 생각하고 용마산악회 발전을 위해서 작은 밑그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임회장은 이임사에서 “산에서 행사를 못하고 안타깝다. 용마산악회가 올해 창립 21주년을 맞았다. 선배들의 기여로 큰 단체로 발전했

다. 내년에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산에서 회원들이 함께 만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대욱(33회)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김 전임회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용마산악회 회원의 기수 폭이 넓다. 총동창회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서 산악회 활동이 자유로운 날이 빨리 오길 기원했다.

이 자리서 제병민(13회) 하영수(17회) 전임 회장이 각각 격려사를 통해 함께 산을 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동창회는 이날 용마산악회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2022년 용마산악회 신임 집행부 =△회장 서석권(35회) △수석부회



용마산악회 김법영 전임 회장(오른쪽)이 서석권 신임 회장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전했다.

장 이동희(36회) △사무국장 이종민(41회) △산행대장 문상현(41회) △간사 유상일(51회) △부회장 이인욱(35회) △감사 신동해(35회) △고문 전직 회장단.

33산우회가 창립 21년 만에 900차 등반을 달성했다. 가족 동반 13명이 제주도 애월읍에 있는 노꼬메(눈고메 833m, ‘높은 산’이라는 뜻)오름을 900차로 산행했다. 원래는 2박3일(1월 11~13일) 일정으로 한라산 등반과 제주도 여행을 기획했으나, 사흘 연속 눈보라로 한라산 등산이 통제되어 코스를 변경했다. 눈바람이 계속되고 흐리고 추웠지만, 눈을 거의 못 보는 부산 산우들은 즐거운 기분으로 올라갔고, 정상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눈바람에 기다린 보람이 있어 잠깐 조망이 보였던 순간에는 모두 탄성을 질렀다. 나른 눈 산행의 아쉬움을 달래주었던 등반이었다. 그 외에도 단산, 새별오름 2개의 오름도 다른 날 올랐다. 33산우회는 용마산악회 창립 등반(2000년 6월 11일) 때 결성돼 막내기수로 참가한 바 있다.

참가자: 김법영 김미란, 김종만 윤서현, 김태훈 이수정, 남택은 이명진, 민병현 공미형, 박태중 김희정, 김미경.

경남고, 서울대 1명 등 대입 수시성적 “맑음”

2022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수시모집 합격자에 대한 대학별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이번 수시모집에서 서울대

1명을 비롯, 서울지역 주요 대학과 부산지역 국립대 등을 포함하여 예년에 비해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

다. 이 같은 성과를 두고 학교 측에서 추진하고 총동창회가 지원했던 ‘학생 학력신장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 주요 대학 합격자로는 서울대

추승민(3학년 3반), 연세대 하진현(3학년 1반), 고려대 박성우(3학년 4반) 외 5명 등이 있다. 부산 지역에서는 부산대 12명, 부경대 20명, 한국해양대 12명, 동아대 32명 등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아울러 지난해 졸업생인 황예찬 동문이 인제대 의대에 합격하였다. 합격자 현황을 정리하면 표물과 같다.

대학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기타 지역	인제대 의대	DGIST	한국교원대	경북대	부산지역	부산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동아대
합격 인원	1	1	6 (야구부 2)	1	3	3	1	5 (야구부 1)	2	1	1	1 (졸업생)	2	1	3	부산지역	12	20	12	32



경남중이 수상한 학부모회 공로, 감사우수 기관, 방과후 활성화 표창장(왼쪽부터).



경남중 통학로 개선 현장. 통학로 개선 전(사진 왼쪽)과 개선 후 달라진 모습.

경남중, 2021년 괄목할 성과 “뿌듯”

경남중(교장 김미정)은 2021년 학교 운영을 분석하고 지난 한해 거둔 성과 ‘Best Top 11’을 선정했다. △방과 후 학교 운영 활성화 기여 교육감 표창장 △감사 우수기관 선정 교육감 표창장 △학부모회 교육참여 활성화 교육감 표창장 △청렴노력도 우수학교 선정 △학교 앞 안전통로 조성 △학교 공간혁신 사업 추진 △친환경 잔디구장 조성 △책결상사 물함·신발장 교체 △현대화 방송실 기자재 교체 △블렌디드러닝교실 구축 운영

△무한상상실 구축 운영 등이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

○...경남중은 서구청과 협의, 학교 주변의 공영 노상주차장 14면(정문 5, 후문 9개면) 폐쇄를 통한 학생 안전통학로를 확보했다. 25년 학교 숙원사업이 해결된 셈이다. 경남중은 학교 부설 지하주차장 8개면을 올 3월부터 낮동안 주민들에게 개방하기로 서구청과 협약을 맺었다.



경남중 책쓰기 동아리가 발간한 ‘교실 구석 문학소년’ 표지.

1년 활동 작품 모아 책 펴내 책쓰기 동아리, 보건소 위문도

○...경남중 책쓰기 동아리는 1년 동안의 활동 작품을 모아 ‘교실 구석 문학소년’이란 책을 발간했다. 1~3학년 17명으로 구성된 이 동아리는 지난 한 해 자신들이 직접 창작한 시, 포토에세이, 독서기록, 수필, 소설, 교내백일장 수상 작품 등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 이 동아리는 서부교육지원청 자율동아리 활동 공모에 계획서가 당선돼 활동비를 지원받았다.

동아리 회원들은 ‘가장 응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시를 보내자’는 의견을 모아 코로나19로 고생하는 학교 인근의



경남중 책쓰기 동아리가 창작시와 위문품(사진 상) 등을 마련하여(사진 중) 서구보건소의료진에 전달했다(사진 하).

서구보건소 의료진을 방문, 위문품과 직접 손으로 쓴 시를 전달했다. 장기간 고된 업무에 지친 의료진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경남중 신입생들이 예비소집일에 학교를 방문했다.

경남중, 2022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경남중학교는 지난 1월 17일 2022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을 실시하였다. 올해는 중학교 신입생의 전체적인 숫자가 줄어들어서인지 학급당 24~25명이 되도록 122명이 배정되었다. 이번 2022학년도 신입생은 구덕초등학교 17명을 비롯하여, 전체 21곳의 초등학교에서 배정되어 왔다. 경남중은 인근 관내 초등학교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교로 알려져 있다.

신입생 예비소집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신입생들이 출신 학교별로 시간차를 두어 학교에 와서 안내자료 및 교과서를 받고 귀가하도록 하였

다. 특히 그동안 교과서를 가져갈 수 있도록 가방을 지참하도록 하였으나, 이번에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에코백을 제작, 교과서와 안내자료를 가져가도록 하였다.

신입생들에게 우리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줄 수 있는 기회였다. 한편 입학식은 오는 3월 2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경남중이 자체 예산으로 신입생을 위해 마련한 에코백.

김미정 교장, ‘경남중고’ 사행시 발표

경남중 김미정 교장이 지난 1월 19일 열린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끝을 맺으면서 ‘경남중고’ 사행시를 읊었다. 이날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은 사행시를 소개한다.



경남중 김미정 교장이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

- 경 경남중고는 경남에 없고 부산에 있는, 80년 역사 명문학교!
- 남 남들은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대한민국 이고는, 막강파워 동문선배님들!
- 중 중단 없는 전진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모교 경남중고!!!
- 고 고등학교 최고 · 중학교 짱 · 선배님들 따봉!! 80년 총동창회 따따봉!!!!

동기회·동호회 및 직능단체

허문준(22회) 동문, 산문집 '봄날은 간다' 출간

지난해 자전소설 '무지개가 있는 풍경'과 장편소설 '두 줄기의 강'을 연이어 출간, 세인의 주목을 받았던 허문준(22회원내사진) 동문이 산문집 '봄날은 간다'(북랩 간사진)를 지난 세밑까지 펴냈다.

허 동문은 책 서문에서 '내 속에 느껴진 감흥,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떠내려 보내기 싫어서 여기저기 써두었던 것을 모았다. 퇴고를 하다 보니 내 속에는 소년도 있고, 청춘도 있다'고 적었다. 가지에 붉은색 꽃을 청초롭게 피워낸 고목의 안쓰러움 같은, 꺼지지 않은 정열이 61편의 글 속에 담겨 있다.

이미 두 권의 소설집에서 문학적 내공을 펼친 허 동문은 이번 산문집에서 삶과 자연, 그리고 예술을 관조하는

깊이와 폭이 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삶에 예술을 투영하는 다양한 글들은 해박한 지식과 심미안이 더해진 수준 높은 작품으로 평가된다. 글 '툭아보기'에서 '세상의 만물은 보는 자에게 문을 열어 준다...자세히 보는 만큼 자세히 보여준다'고 썼다. 허 동문의 문학적 재능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가늠할 수 있다.



이태석 신부 전기 '신부 이태석' 출간

제35회 동문인 고(故) 이태석 신부(사진)의 48년 삶을 생생하게 그려낸 '신부 이태석'(김영사 간사진)이 최근 출간됐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출판 인가를 받은 공식 '정보 전기'로 전기 작가 이충렬 씨와 이태석 신부가 생전에 설립한 (사)수단어린이장학회가 함께 만들었다.

이 책은 이 신부 선종 10주기 기념도서로서 이 신부의 헌신적 삶과 영성을 복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집필되었다. 지금까지 이 신부와 관련해 잘못 알려졌던 사실을 바로잡고 공개되지 않았던 일화들을 조명했다. 책 인세는 전액 (사)수단어린이장학회에 기부된다.



15회 화친회 = 월례회

지난 1월 11일(화) 오후 6시 서면 토담골에서 제312회 모임을 가졌다.

참석자: 김정길 김종태 김판열 박소남 박찬호 정준수

17회 산악회 = 녹산 봉화산, 송정둘레길 산행



지난 1월 9일(일) 해운대팀은 허리가 좋지 않은 친구가 있어 조금은 편한 둘레길(해운대-송정-동암부락)로 갔다. 본동팀도 박재구군이 몸살기로 빠지고, 명지 녹산 시메기리 뒷산 봉화산을 산행지로 택했다. 하단에 오전 10시에 모여 용원 넘어가는 성고개로 이동, 산행을 시작했다. 320m여 높이인데도 산행이 수월하지 않다.

약간 부영계 흐린 날씨에 땀을 좀 흘리고, 짹짹거리며 급한 경사를 올라 파평 윤문 묘소들을 지나고 시간 남직 올라 복원된 커다란 봉수대가 있는 정상에 이른다. 지사과학공단, 미음공단이 흐릿하게 펼쳐진다. 정상에서 왔던 길을 조금 되돌아 내려 산양마을로 내려 2시간 반 남직 산행을 마친다.

참석자: 김길호 박신도 박인사 박청홍 신정아 오태식 이견우 하영수

19회 산악회 = 대지산 산행기

지난 1월 23일(일) 전철분당선 오리역~구미동 능선길~대지산~죽전쪽 하산길~내대지마을 버스정류소~오리역까지 산행을 다녀왔다. 해발 20m 정도의 탄천에서부터 326m까지 걸어 올라가는 코스라 다들 꽤 힘들었다. 산행 후 회식에 근처 사는 수상동기가 참석하여 모두들 반겼다. 그 수상어르신은 밥값을 쾌척, 더욱 고맙게 박수하였다.

참석자: 정덕 문찬 인선 용환 문환 복춘 상만 성철 종선 철원 유희 경래 순창 수상(회식 참석)

23산우회 = 지리산 둘레길 산행

지난 1월 15일(토) 23산우회는 산대장 송충송 외 13명의 동기가 모여 지리산 둘레길(성심원~운리) 산행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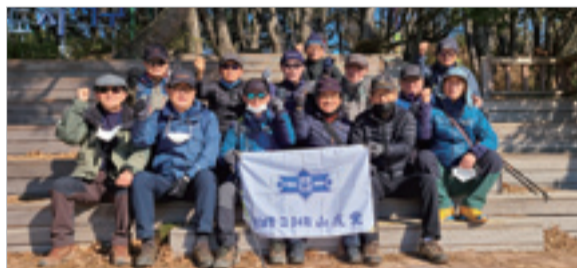


24회 동기회 = 집행부 및 고문단 회의 개최

지난해 12월 15일(수) 24회 동기회 집행부 및 고문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2022년도 회장 최우림, 감사 김인철 동문이 선임되었고, 수석부회장 최동우, 사무국장 김인구 동문이 지정되었다. 분기 1회 가지던 동기모임을 격월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참석자: 곽두희 김도현 김명배 김성권 김인구 김인철 안상수 여철우 임민호 정영환 최동우 최승국 최우림 태창업

24회 산우애 = 1월 정기산행



지난 1월 8일(토) 자갈치역 7번출구~버스 탑승~암남공원 입구~제1전망대~제2전망대~두도전망대~케이블카전망대~용궁다리 입구~송도 오션파크~365구름다리 입구 구간(6.5km)으로 1월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산행 후 점심식사에 최우림 신임 동기회장이 참석, 산우애에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참석자: 곽두희 김성권 김영식 김인구 김인철 박해성 안형수 유희석 임민호 조재진 최승국 태창업 황규선

28 기우회 = 송년 바둑대회 및 정기총회



28기우회(회장 김부운)는 지난해 12월 4일(토) 오후 3시부터 서면 부전기원에서 2021년도 송년 바둑

대회를 개최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12명의 기우가 열전을 벌였다. 3승이 3명이 나와 추첨을 통해 박래섭 기우가 우승을 차지했다. 한 해 동안 기우회 출석률이 가장 높았던 김정유 기우가 최다참석상을 받았다. 이날 박종기 본부동기회장은 대회 식전에서 "기우회가 동기회에 큰 활력을 주고 있다"면서 격려의 금일봉을 전달했다.

대국을 마치고 참석자 전원 서면 남해수산횃집에서 송년회식을 겸한 정기총회를 가졌다. 김정유 기우가 2022년 새 기우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신임회장은 2년간 수고한 김부운 전 회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2022년에도 경부 동기 및 타 기우회와 교류전, 기별 바둑대회 등을 통하여 기우회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참석자: 김부운 김용섭 김정유 박래섭 박병준 박인철 양동욱 우건식 이관선 이만수 이승준 전학명

28 산우회 = 송년 산행 및 정기총회



28산우회(회장 김정유)는 지난해 12월 12일(일) 하단의 승학산(497m) 등반을 마지막으로 2021년 산행을 마무리했다. 오전 9시30분 하단 동아대 캠퍼스 정문에서 출발, 10시40분경 정상에 도착해 기념촬영을 했다. 김이청 산우가 준비해 온 막걸리로 목을 축이고 하산, 서대신동 금릉반점에서 송년 회식 및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 회원들은 김 회장을 유임시켰다. 김 회장은 2022년 기우회와 산우회를 같이 이끌게 됐다. 한편 박종기 본부동기회장은 점심 회식에 참석, 산우회의 활발한 활동을 치하하고 격려의 금일봉을 전달했다.

참석자: 김이청 김정유 박재훈 박종기 여인남 옥상곤 이인재 조광제 조영제 최연욱 허남식

<기사 23면에 넘김>

동기회·동호회 및 직능단체

55회 동기회 올해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1호

67명 단체로...약속 이행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2022년도 제1호는 55회 동기생 67명이다. 단체 납부가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졸업 2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를 치르고 내건 동창회보 단체 납부 약속이 이행됐다. 새해 벽두 총동창회 막내 기수의 이 같은 '모범적 결행'은 총동창회서 벌이고 있는 올해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4,000명 달성을 위한 노력에 큰 힘이 되고 있다.

55회 동기회는 지난해 5월 6명의 동기생이 모여 창립총회를 가진데 이어 11월 홈커밍데이 때는 53명이 모여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바 있다. 나날이 동기회 참여자가 늘고, 결속력이 강화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파이팅이 넘치는 55회 동기회의 활약에서 총동창회의 밝은 미래를 읽을 수 있다.

<기사 22면에서 받음>

한편, 28산우회(회장 김정유)는 지난 1월 9일(일) 해운대 장산(534m)을 등반, 임인년 시산제를 지내고 금년도 산행 안전을 기원했다. 강화된 방역조치로 5명만 참석해 오전 9시 30분 동백역에서 만나 11시 40분 정상에 도착했다. 시산제를 올리고 오후 2시에 하산, 해운대 재래시장에서 막걸리와 파전으로 새해 행운을 축원했다.

참석자 : 김이청 김정유 이인재 최연욱 허남식

28 테니스회 = 창립30주년 기념 경기



28테니스회(회장 김태완)는 지난해 12월 18일(토) 감전동 MJ테니스코트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및 송년 친선경기를 가졌다. 오후 4시부터 6명의 선수들이 단복식으로 열린 경기를 가졌다. 경기 후 학장동 소재 오동동할매아구에서 송년 회식을 가졌다.

총회를 겸한 회식 자리에서 차기 회장으로 김태완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유임시켰다. 이에 앞서 박종기 본부동기회장은 경기장을 방문, "30년의 연륜을 가진 동호회답게 변함없는 활동이 동기회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축하의 금일봉을 전했다.

참석자 : 김상정 김태완 박재훈 배정환 이인재 G정원정

28 당구회 = 송년 당구대회



28당구회(회장 조광제)는 2021년을 결산하는 송년 당구대회를 수영구 남천당구클럽에서 12월 9일과 23일 개최했다. 12월 9일 예선에서 16명의 선수가 오후 7시부터 토너먼트 방식으로 맞붙었다. 강용수 박영규 송재영 이민우 선수가 2차전을 통과, 본선에 진출했다. 12월 23일 열린 불꽃 튀는 3구 본선에서 박영규 선수가 우승, 송재영 선수가 준우승, 강용수 선수가 3위를 차지했다. 대회 후 오후 7시경 남천동 소백산갈비 식당으로 이동, 송년 회식을 가졌다. 박영규 우승자가 저녁 식대를 회식했다. 이날 박종기 본부동기회장은 당구장을 방문, 동호회 활성화 차원에서 이 대회의 우

승상금 30만원을 지원했다.

12월 9일 예선 출전선수 : 강용수 김명보 김양태 김이청 노영현 박영규 박진화 소유남 송재영 안 풍 이만재 이명재 이민우 이철행 정성목 조광제 G국승규

28회 본부동기회 = 비대면 정기총회

28회 본부동기회(회장 박종기)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동기회 밴드를 통하여 비대면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회장과 감사 연임 ▲이사회 구성 변경 등 2가지 안건이 표결에 부쳐져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로써 현 박종기 회장과 이인재 감사가 4년째 연임하게 되었으며, 단출한 조직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28회 본부동기회는 회비납부 회원 100여명에 이사회 멤버인 각종 임원이 61명이나 되었다. 이사회 소집시 참석자가 15명이 채 되지 않았으며 의결 안건의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박 본부동기회장은 지난 2년간에 걸쳐 동기회 재정을 안정시켜놓고, 임원과 일반회원 간 차등을 두었던 연회비를 10만원으로 통일시켰다. 또 기존의 수석부회장, 부회장, 명예이사, 이사 등을 모두 해촉했다. 이어 5개 동호회 회장과 총무를 이사로 위촉하고, 집행부와 함께 약 10명 안팎의 실용적인 이사회를 구성했다. 전임 동기회장들은 모두 고문으로 예우, 신설 '고문회의'에서 회장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8회 본부동기회는 종전 7개 직책에서 고문, 회장, 감사, 이사 등 4개로 슬림화됐다.

30 당우회 = 친선당구 대회



지난해 12월 4일(토) 30당우회(회장 정재화)는 남천당구클럽에서 친선 당구대회를 가졌다.

33 야구단 = 납회식



지난해 12월 3일(금) 오후 6시 부평동 해성돈가(33회 김일 동문 운영)에서 10명의 동문이 모인 가운데 2021년 납회식을 가졌다. 이 자리서 2022년 덕형리그

모교·총동창회 발전기금 기부

35회 동기회, 홈커밍데이 대신

35회 동기회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치르지 못한 졸업 4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를 대신하여 모교(경남고·사진 위) 발전기금 500만원, 총동창회(사진 아래) 발전기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야구후원회 후원금 500만원도 조성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모교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정운성(본부동기회장) 김동일(동기회 초대회장) 강현욱(재경동기회 총무) 동문이 참석했다.



(회장 이운조·33회) 발전을 위한 논의를 했다.

33 당구회 = 당구회 발족을 위한 모임



지난해 12월 16일(목) 오후 6시 연산동에서 내년 정식으로 '33 당구회' 발족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이날 동기회 발전을 위한 노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42회 동기회 = 정기총회



지난해 12월 10일(금) 용호동 소재 이가한우에서 경남중고 4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방역수칙 재조정으로 40명 예약인원을 축소하여 진행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2021년 한 해 동기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 희생, 열정으로 섬겨 준 동기에게 주는 '동기대상'과 '친구42상' 시상식이 있었다. 동기대상에는 여인환, 친구42상에는 김원주 동문이 각각 수상했다.

참석자 : 강인호(12대 수석부회장) 고장석(동기회 산악대장) 곽창우(12대 동기회장) 김영태(동기회고문) 김원주(12대 신입부회장) 김현오(동기회고문) 문지성(12대 부회장) 신봉준(11대 동기회장) 윤영기(12대 부회장) 이영도(11대 사무국장) 정용준(12대 신입부회장) 정홍준(12대 사무국장) <기사 24면에 넘김>

동기회·동호회 및 직능단체

<기사 23면에서 받음>

53회 동기회 = 송승준 은퇴식과 박종찬 고문의 후배 사랑



지난해 12월 11일(토), 17일(일) 2차례에 걸쳐 동기모임이 열렸다. 1차 모임에서 동기의 자라이자 최동원(31회) 동문의 뒤를 이어 롯데 자이언츠의 올타임 레전드로 기억될 동기생 송승준 투수의 은퇴를 기념하여 그간의 업적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인생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2차 모임은 용호동 이가한우에서 열렸다. 이날 마침 박종찬(25회) 고문이 같은 층 다른 방에서 식사 중이었다. 이 첩보를 입수한 53회 동문이 인사 방문하자, 박 고문이 답방하여 덕담과 함께 후배사랑의 찬조금을 건넸다.

참석자 : (1회차) 김권우 김효종 박정진 박한웅 송승준 이원준 한동인 (2회차) 김권우 박진영 이원준 이음배 하병오 한동인 황명수 황선경

55회 야구팀 = 첫 연습



지난 1월 16일(일) 오후 4시 백운포 야구장에서 55회 동기야구팀(Warning55)은 새해 첫 연습 모임을 가졌다. 감독 고운성, 사무국장 이동주 외 회원 21명은 내년 덕형리그 참가를 목표로 연습하기로 하였다.

55회 동기회 = 56회 후배와의 만남



지난 1월 17일(월) 오후 6시 30분 부전동 개미집에서 56회 장재환(회장), 이재혁 동문과 56회 졸업 20주년 홈커밍데이 준비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

참석자 : 장지훈 이육한(이상 55회) 장재환 이재혁(이상 56회)

55회 동기회 = 사회시설에 쌀 기증



55회 동기회는 졸업 2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 때 받은 축하 쌀화환 11점(110kg)을 지난해 11월 27일(토) 사상구 소재 장애인보호시설에 전달했다. 장지훈 동기회장과 이육한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 시설은 장 회장이 후원과 봉사를 하고 있는 곳이다.

경미회 당구대회 “벌써 6회”...뿌리 내려 총동창회 발전 기여 ‘소통의 장’ 역할

친목교류분과 우승 차지

경미회 당구대회가 회를 거듭해 가면서 동문의 회관 방문과 선후배 간 친목 도모 취지를 살리면서 정착돼 가고 있다. 지난 1월 27일 오후 총동창회관 내 KN당구장에서 제6회 경미회 당구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 친목교류분과(사진)가 우승을 거머쥐었다. 준우승 대외협력분과, 3위 사회공헌분과이다.

대회를 마치고 이수환(37회) 동문의 ‘무바바치킨’으로 간소한 뒤풀이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서 총동창회의 모교사랑기금 모금과 야구후원회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이날 우영환(40회) 경미회 고문과 최영준(41회) 회장이 각 30만원씩 찬조했다.

등대회 = 안청홍(29회) 회장 연임 결의



경남중고 해운 항만 물류 직능단체인 등대회가 지난해 12월 7일 남구 감만동 노대감한우 식당(33회 노경보 동문 운영)에서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안청홍(29회·사진) 현 회장의 연임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022년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참석자 : 안청홍(29회·회장) 노경보(33회) 오문세 채인석(이상 35회) 성귀호(36회) 김영호(40회) 안광근(41회) 장시호(43회) 정하운(47회) 정준섭(54회)

기독교동문회 = 차기회장 정원규(31회) 동문 추대



지난 연말 남천동 동화반점에서 기독교동문회 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모임을 가졌다. 한해 봉사결산 및 차기 회장단 구성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차기회장단 구성은 31회에서 구성하기로 하고 위임하였다. 한편 31회 회원 4명은 지난 1월 13일 모임을 갖고 정원규(수영로교회 안수집사) 동문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하였다.

북가주 동창회 = 송년회



북가주 동창회의 송년회가 지난해 12월 13일(월) 중국 요리 뷔페식당에서 부부 함께 15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5월 야외소풍에 이어 두번째 모임이다.

—<바로 잡습니다>—

동창회보 제438호(2021년 12월 13일자) 6면 특별기고 기사 중 ‘공헌(Distribution)’은 ‘공헌(Contribution)’의 오타이니 바로 잡습니다.

아코디언 거장 심성락(10회) 동문 타계

아코디언 연주의 거장(巨匠) 심성락(10회·본명 심임섭·사진) 동문이 지난해 12월 4일 타계했다. 아코디언의 전설로 남게 된 심 동문은 경남고 1학년 때 광복동의 한 악기점에서 처음 아코디언을 만나 독학으로 익히며 연주자의 길로 들어섰다. 서울로 진출한 심 동문은 1,000장이 넘는 음반 작업에 참여했고, 등록된 연주곡이 7,000여곡에 이른다. 영화 OST에도 참여했다.



2009년 당시 대중가요계 사상 최고령 뮤지션의 정규앨범으로 알려진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를 발매했다. 2010년 제7회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회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2011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동 정

박영빈(27회),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선임



△이사장 사퇴로 공석이었던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 박영빈(27회) 동문이 선임됐다. 박 동문은 장기신용은행과 한미은행을 거쳐 경남은행 부행장, 우리금융지주 전무, 경남은행

장 등을 역임한 금융전문가다.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동성그룹 부회장을 맡는 등 기업 경영과 금융 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종주(29회), 안전보건공단 신임이사장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 안종주(29회) 동문이 선임되었다. 안 동문은 한겨레신문 환경보건 전문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지속가능

분과위원장, 단국대 보건복지대학원 교수, 서울시 안전명예시장 등을 역임했다. 언론사 재직 당시 1988년 우리나라 직업병의 상징으로 불리는 ‘원진레이온 참사’ 및 석면 관련 직업성암 실태를 처음으로 보도했다.

<기사 25면에 넘김>

요즘 어떻게?

<20회>

△신기한 = 모친상. 1월 20일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 6분향실에서 발인.

<24회>

△김도현 = 모친상. 12월 5일 동아대 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문병대 = 모친상. 12월 10일 언양 새울산보람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정봉화 = 장남 2월 5일(토) 분당 지구촌교회 비전센터 8층에서 결혼.

<25회>

△김동진 = 모친상. 12월 28일 온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26회>

△김동환 = 빙모상. 1월 20일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 6호실에서 발인. △김원철 = 장남 성태군 2월 13일(일) 오후 2시 서울 마리드블랑 신라스테이 역삼 B1에서 결혼. △이유상 = 처녀 사 진집 '제주 좋은 빛 함께 봐요' 교보문고 통해 발간. △임영재 = 빙부상. 12월 24일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서 발인.

<28회>

△권혁우 = 딸 세진양 2월 12일(토) 서울 노블발렌티(삼성점)에서 결혼. △김경수 = 아들 용대군 1월 9일(일) 서울 더 컨벤션반포에서 결혼. △김명영 = 장남 도형군 1월 16일(일)파크하얏트호텔 부산에서 결혼. △노현상 = 빙모상. 12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백영호 = 모친상. 12월 26일 고신대복음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신광태 = 모친상. 1월 18일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안풍 = 빙부상. 1월 2일 전남 장성 장례식장에서 발인.

△윤일희 = 모친상. 1월 5일 창원 경상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명학 = 부친상. 12월 5일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최광해 = 빙부상. 11월 19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30회>

△김종진 = 모친상. 1월 19일 부산백병원 장례식장 특201호에서 발인. △박수송 = 장남 현수군 1월 22일(토) 오후 3시 20분 더 파티움 여의도 지하1층 그랜드컨벤션홀에서 결혼. △이철호 = 모친상. 12월 9일 인창요양병원 장례식장 501호에서 발인. △정태환 = 모친상. 12월 27일 인창요양병원 장례식장 501호에서 발인.

<31회>

△강부원 = 아들 신호군 12월 26일(일) 오후 1시 30분 센텀 사이언스 파크에서 결혼. △김기정 = 빙모상. 1월 23일 서호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김인현 = 1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쿠드호텔 지하1층「강남봄클리닉」개원. △김태주 = 아들 병훈군 12월 19일(일) 낮 12시 서울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결혼. △김홍두 = 아들 상기군 12월 10일(금) 오후 7시 가족과 함께 스몰웨딩. △신상하 = 모친상. 1월 24일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안용모 = 빙부상. 1월 8일 마산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장건호 = 장녀 은지양 1월 8일(토) 낮 12시 호텔 농심 허심청에서 결혼. △전창수 = 모친상. 12월 15일 삼신전문 장례식장에서 발인. △정용재 = 모친상. 12월 19일 괴정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채경수 = 모친상. 1월 21일 인창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33회>

△진용권 = 빙모상. 1월 15일 부산 온 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광호 = 모친상. 1월 28일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42회>

△김동수 = 1월 10일 마산 롯데백화점장으로 발령. △김수용 = 12월 21일 수협은행 범일동지점장으로 발령. △김재성 = 빙부상. 12월 28일 발인. △민성기 = 모친상. 12월 12일 발인. △박기열 = 빙부상. 12월 22일 발인. △박영철 = 1월 10일 세종 예뜰순복음교회 담임목사로 청빙. △양정규 = 모친상. 12월 25일 발인

<54회>

△조중완 = 1월 14일 부산 사상구 사상로 212번길5「오향목」가오픈.

부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성락(13회) = 12월 28일 작고
 △변화진(13회) = 12월 21일 작고
 △강길연(15회) = 1월 2일 작고
 △윤우경(15회) = 12월 13일 작고
 △조영일(15회) = 12월 19일 작고
 △홍용찬(16회) = 12월 9일 작고
 △김동조(17회) = 12월 4일 작고
 △전영철(18회) = 12월 19일 작고
 △유성현(20회) = 12월 15일 작고
 △정을호(20회) = 1월 22일 작고
 △박건준(23회) = 1월 17일 작고
 △하영근(23회) = 1월 17일 작고
 △홍종기(23회) = 1월 23일 작고
 △송기현(25회) = 12월 29일 작고
 △이주창(26회) = 1월 26일 작고
 △김동규(28회) = 1월 6일 작고
 △엄보용(28회) = 12월 23일 작고
 △김부근(29회) = 1월 8일 작고
 △허현도(29회) = 1월 27일 작고
 △김진수(42회) = 1월 15일 작고

2021년 구독료 납부현황

2021년 12월 31일 현재

기수	발송부수	납부인원	납부율(%)	기수	발송부수	납부인원	납부율(%)	기수	발송부수	납부인원	납부율(%)
1	0	0	0%	20	68	59	87%	39	66	49	74%
2	0	0	0%	21	105	90	86%	40	97	40	41%
3	6	5	83%	22	98	78	80%	41	78	39	50%
4	7	6	86%	23	94	81	86%	42	50	17	34%
5	11	11	100%	24	115	90	78%	43	75	31	41%
6	20	14	70%	25	197	133	68%	44	63	33	52%
7	21	16	76%	26	108	86	80%	45	56	48	86%
8	25	18	72%	27	83	59	71%	46	46	37	80%
9	24	14	58%	28	90	79	88%	47	40	17	43%
10	42	35	83%	29	117	83	71%	48	13	8	62%
11	63	53	84%	30	115	84	73%	49	49	7	14%
12	77	64	83%	31	89	75	84%	50	70	8	11%
13	91	77	85%	32	46	39	85%	51	113	24	21%
14	68	61	90%	33	62	55	89%	52	141	32	23%
15	77	62	81%	34	37	30	81%	53	43	17	40%
16	86	69	80%	35	56	38	68%	54	91	21	23%
17	64	55	86%	36	65	60	92%	55	12	8	67%
18	91	74	81%	37	41	34	83%	56	10	1	10%
19	105	90	86%	38	45	44	98%	57이후	32	13	41%
Sub-total(1)	724 명			Sub-total(2)	1,297 명			Sub-total(3)	450 명		
미상	3 명			목표인원	4,000 명			구독료납부인원	2,474 명		
총발송부수	3,654 명										

회보구독료 선납부자

11회 김광석 2024년, 이세영 2025년
 13회 안성문 2029년, 이경재 2030년
 16회 민신웅 2023년
 18회 홍우재 2024년

23회 박재호 2028년
 24회 구자웅 2023년
 25회 임창운 2051년
 26회 이상원 2030년
 28회 하재근 2028년
 29회 황유명 2023년

30회 강석철 2030년, 박철우 2027년, 신교선 2025년
 33회 최웅남 2030년
 34회 박철웅 2023년
 37회 서동욱 2024년, 허부남 2026년
 38회 권두성 2029년, 김언규 2024년
 40회 박훈재 2025년

48회 김춘호 2023년
 50회 박종현 2028년
 51회 신혁후 2025년, 신현식 2029년
 53회 황종민 2023년
 54회 엄도용 2024년
 69회 정민기 2023년

<기사 24면에서 받음>

박정국(30회), 현대차 연구개발 본부장 선임

△현대차 연구개발 본부장에 박정국(30회) 동문이 선임되었다. 박 동문은 지난달 연구개발본부 내 신설된 수소연료전지담당을 총괄한데 이어, 이번에 본부장으로 선임된 것이다. 박 동문은 연구개발(R&D) 전문가로 엔지니어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현대모비스 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철영(33회), 대한토목학회 54대 회장 취임

△김철영(33회) 동문이 대한토목학회 제5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더불어 재



경 '자랑스런 용마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김 동문은 현재 국토교통연구원프라 운영원 이사장, 하이브리드 구조실험센터 센터장을 역임 중이다.

안종일(35회),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임명

△안종일(35회) 동문이 하수처리시설 등 지역 내 공공 환경시설들을 관리하는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안 동문은 27년간 부산시 공직생활을 하면서 부산시 교통국장, 기획



행정관, 건강체육국장, 시의회 사무처장을 역임한 행정 전문가이다. 온후한 성격에 시정과 행정에 두루 밝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병국(36회), KBS 기술본부장에 선임

△KBS 한국방송공사 공채 기술엔지니어로 입사하여 네트워크센터장, 제주총국장을 역임한 김병국(36회) 동문이 KBS의 방송기술 부문 전국 최고 책임자인 기술본부장(임원급)에 선임되었다.

류승호(36회), 이수화학 사장 승진



△류승호(36회) 동문이 이수화학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전규열(40회), ROTC중앙회 공로상

△전규열(40회) 동문이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ROTC중앙회 정기총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전 동문은 ROTC중앙회 국회특보로서 다년간 청와대와 국회 출입기자 경험을 바탕으로 ROTC중앙회와 국회 간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뤄지도록 했다.





모교 80년사 발간

경남중고등학교는 올해 4월 30일 개교 80주년을 맞습니다.
6만 용마인의 자랑스러운 모교 80년사가 발간됩니다.

모교(학교)사 - 총동창회 편집위원

동창회사 - 재경동창회 편집위원

경남중고 동문 선후배 여러분께 모교80년사 편찬에
깊은 관심과 함께 광고 협찬을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총동창회 사무국 (051)253-7788

경남중고 80년사 편찬위원회

1942 KN CAFE & RESTAURANT

